

2-4-2002

외국인 근로자 양육을 통한 선교

Seung Soo Lee 이승수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이승수, "외국인 근로자 양육을 통한 선교."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2.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OVERSEAS MISSION THROUGH FOREIGN WORKERS IN KOREA

written by

SEUNG SOO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Ho Jin Jun

Moon Sang Kwon

Seyoon Kim

February 4, 2002

**OVERSEAS MISSION THROUGH FOREIGN WORKERS
IN KOREA**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EUNG SOO LEE

FEBRUARY 2002

외국인 근로자 양육을 통한 선교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전호진 교수

이 승 수

2002년 2월

ABSTRACT

Overseas Mission Through Foreign Workers in Korea

Seung Soo Lee

Doctor of Ministry

2002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is to suggest an effective strategy for evangelical mission through the foreign workers in Korea. In the Korean church, this type of evangelism has been familiar enough to win a recognition in our mission field. Its beginning goes back to the Olympic in Seoul, 1988, which well presented economical power of Korea worldwide and really made the Korean industrial field international. Then, there has been together a lack of human resources in 3D labor field(3D labor is a term describing "dangerous", "difficult" and "dirty" job) and an increase in number of foreigners coming into Korea. Such phenomena are expected to continue for a long time. Then, it is undeniable that the mission work with these foreign workers is a very significant part of the evangelical mission operated by the Korean church. As presenting a study on the mission strategy through the foreign workers, I hope our mission to be more active.

As begins, this thesis discusses on the missionary calling of the church, subsequently arguing the need and reason for the mission through foreign workers. Then, it deals with the condition of foreign workers in Korea, the reality of present evangelical mission for them, a biblical view point toward the foreign workers and the missiological reason for more effective foreign workers mission. After that, the study presents discipleship training as an important mission strategy with the foreign workers. The discipleship training has been well proved already: the Korean church has plenty experiences with it. In attempting to remind a reasonability of giving them discipleship training in order to enable them

to partake the mission work, I first introduce the theory of discipleship training in the general pastoral ministry, and then discuss about effectual application of the training toward the foreign workers. In conclusion, I would present a number of practical and concrete strategies for the evangelical mission through the foreign workers and its further progress.

The essential poi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bringing up the foreign workers and making them participate in the mission together is a very powerful way of evangelical miss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I believe for sure, our evangelical mission through and with the foreign workers.

Theological Mentors : Ho Jin Jun, D. Miss., Ph. D.

Moon Sang Kwan,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말씀

우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지도해 주신 전호진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논문을 완성함에 있어서 신학적 기초를 확고히 가르쳐 주신 김세운 박사님과 아울러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민종기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배움의 길을 갖도록 기회를 주신 주영교회 강민수 목사님과 공부하는 동안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남부 주영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언제나 아들의 학업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어머니님 김영애 권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곁에 있으며 용기를 주고 기도로 협조해 준 아내 김명신 사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빠의 배움을 기뻐하며 옆에서 도와준 아들 재현에게 아빠의 사랑을 전합니다.

늘 잊지 않고 격려해 주시고 본 논문의 편집 과정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태석 목사님과 학교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선교 사역을 함께 하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총현교회 외국인 근로자 부서의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2월

이 승 수

목 차

ABSTRACT	ii
감사의 말씀	iv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교회와 선교	6
제 1 절 교회	6
1. 교회의 개념	6
2. 교회의 두 본성	8
3. 교회의 선교적 특성	9
제 2 절 선교	11
1. 선교의 개념	11
2.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	12
3. 선교의 목적	17
제 3 장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선교 전략의 필요성	19
제 1 절 외국인 근로자 선교 정책 수립의 필요성	19
제 2 절 선교 역사에 나타난 선교 전략의 예	21
제 3 절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선교의 타당성	22
1. 성경적인 면에서의 타당성	22
2. 문화적인 면에서의 타당성	23
3. 현실적인 면에서의 타당성	24
제 4 절 외국인 근로자 양육 선교의 필요성	26

1. 외국인 근로자의 선교사화	26
2. 선교 방법	27
제 4 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찰	32
제 1 절 일반적 고찰	32
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32
2.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과 현황	33
3.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 실태 및 문제점	35
4. 외국인 근로자 선교 현황	40
5.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역 현황	45
제 2 절 신학적인 이해	48
1. 구약적 이해	48
2. 신약적 이해	53
제 3 절 선교적 이해	55
1. 타종교에 대한 이해	55
2. 문화와 언어 전달에 대한 이해	56
3. 각 종교권별 이해	59
제 5 장 선교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양육	63
제 1 절 일반적 양육 원리	63
1. 양육의 정의	63
2. 양육의 중요성	65
3. 양육 모델	66
4. 지도자	69
5. 양육의 목표	74
제 2 절 외국인 근로자 양육	80
1. 외국인 근로자 양육 사역의 원칙	80
2. 외국인 근로자 양육 목표	84

제 3 절 외국인 근로자 양육의 실제	88
1. 양육의 단계적 목표와 방법	88
2. 양육의 내용	91
3. 커리큘럼의 개발	92
4. 양육의 실행	101
제 6 장 외국인 근로자 선교정책에 대한 제언	102
제 1 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선교관 정립	102
1. 타문화권 선교로서의 외국인 근로자 선교	102
2. 총체적 선교로서의 외국인 근로자 선교	103
제 2 절 타기관과의 협력 사역	103
1. 외국인 근로자 선교단체들과 교회들과의 협력	104
2. 외국인 근로자 자치 단체와의 협력	104
3. 현지 선교사나 선교 단체와의 협력	105
4. 정부 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106
제 3 절 사역 단체의 개발	107
1. 전략 및 자료와 정보의 개발을 위한 기관의 설립	107
2. 사역 단체의 설립	108
제 4 절 외국인 근로자 양육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의 개발	108
1. 한국어 교실의 운영	108
2. 숙소 및 피난처(shelter) 제공	109
3. 의료 사역	110
4. 상담 사역	110
5. 문서 교실 운영	110
제 5 절 도시선교(Urban Mission)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	111
제 7 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4

VITA 119

표 목 차

〈표 1〉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분류별 추이	35
〈표 2〉 송출국가별 연수생 입국 현황	36
〈표 3〉 민족 및 체류자격별 기본적 특성	40
〈표 4〉 년도별 임금추이	40
〈표 5〉 교회의 참여 유형의 장단점 비교	43
〈표 6〉 외국인 근로자 선교단체 유형 분류	45
〈표 7〉 양육의 단계와 상태	91
〈표 8〉 소그룹 활동의 발전단계	98

그림 목차

〈그림 1〉 전체적인 양육 프로그램의 요소	64
〈그림 2〉 예수님의 집중 원리	68
〈그림 2〉 목회 사역의 목표	75
〈그림 4〉 영적 3세대	78
〈그림 5〉 양육의 목표	79
〈그림 6〉 양육의 관계	82
〈그림 7〉 양육의 형태	83
〈그림 8〉 양육의 단계	89
〈그림 9〉 소그룹 생활의 네 가지 구성요소	9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

한국 교회는 짧은 교회의 역사에 비하여, 세계 선교 사상 두드러지게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교회사의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하지 못한 사실이기도 하다. 사실 이런 문제점들은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부족 그리고 한국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이고 정치 경제적인 상황 또한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기질 등에 기인하는 것도 많이 있다. 더구나 급속히 성장되는 한국 경제의 역량에 따른 다분히 물량적인 선교 방법들도 혼란의 한 몫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시각도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선교는 주로 양적인 면에서 평가가 되어지면서,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은 묻혀져 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IMF를 맞이하면서 선교에 대해서도 많은 성찰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능동적이기보다는 피동적으로 IMF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선교가 내 물리면서 갖게 된 기회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보다 역동적으로 선교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자각이 생기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선교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미 우리들이 해 오고 있던 선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선교의 영역이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내국인의 생산직 취업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특히,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하여

이후 5년 동안 노동자 임금이 2배 정도로 상승하자 한국의 노동자들은 3D 업종¹⁾으로 부터 이탈하여 3차 산업인 서비스업으로 이전되었으며, 1차 산업인 농업인구는 더욱 줄어들었고, 2차 산업 현장에도 약 50만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88 올림픽 이후 아시아인들에게 개방된 상황을 틈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틈을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²⁾ 이에 정부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이 풍요롭고 잘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소위 '코리아 드림'(korean dream)을 안고 돈을 벌기 위해 저소득 국가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을 새로운 선교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부여해 주신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들에 대한 선교적 책임을 인식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복음에 빛진 자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 놓으신 이 귀중한 선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과 우리들이 선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소위 창의적 접근 지역 출신들이다.³⁾ 이들은 한국 교회가 직접 찾아가서 선교를 해야 할 대상들이다. 그런데 목적이야 어떻든지 그들이 제 발로 우리나라로 찾아왔다. 우리는 이러한 섭리 속에서 그들을 이 땅으로 이끄심으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영적 통찰력을 갖추고 이 주어진 기회에 그들을 향한 선교적 비전을 키워 가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 복음의 불모지인 중국 대륙과 미전도 지역인 10/40 창⁴⁾ 지역의 복음

1) 3D 업종은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업종으로 한계 산업이라고도 한다.

2) 김규복, "IMF 시대의 외국인 노동자 선교", 교회와 세계 (1998), 29.

3) 전호진, 아시아 기독교와 선교전략 (서울: 영문, 1999), 109.

4) "10/40 창(window)"이라는 용어는 루이스 부시(Luis Bush)가 사용한 것으로, 그는 이 창내의 비기독교 국가들은 선교사 수의 감소, 선교 사역 제한, 국내 교회와 기독교인 억제, 교회 성장 활동 불허 등의 정책을 쓰는 상황이며 이 창내에는 4대 그룹이 있는데 ① 이슬람교가 28개국 7억6백만 명(10/40창내의 인구 31억4천만 중 22퍼센트), ② 힌두교가 인도, 네팔에 7억1천7백만 명(23퍼센트), ③ 불교가 10개의 불교 국가에 약 3억 명(10퍼센트), ④ 부족 국가에 12억 명(38퍼센트)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⁵⁾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선교는 바로 창의적 접근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교는 그들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꼭 필요한 한편, 한국 교회의 대외 선교의 입지를 강화하고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선교 활동은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 후보들에게는 타문화권 선교의 훈련장으로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이 높은 학력과 자국에서의 중산층인 이들이 제자화되었을 때에는 선교적으로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본다. 그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선교사와 함께 협력 사역을 하거나 그들 자신이 자국인을 위한 현지 선교사가 될 때에는 외국인 교사의 활동보다 훨씬 큰 선교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 정치의 변화로 소수 민족주의 발호⁶⁾와 일부 비기독교 종교가 점차로 군사적 절대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소수 종교의 배격⁷⁾ 등 다른 많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기독교 선교는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과 아울러 “역사적으로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⁸⁾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전략적인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볼 때 현재 한국 교회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선교 자원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접근 방식과 이해의 정도가 판이하여 선교 역량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교는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선교 현장에서 그 효용성과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다소 미흡한 선교적 접근 방법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음 수용성에 심각한 해를 가하거나 무관심을 초래해서 중요한 선교의 호기를 놓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정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순한 목

5) 강승삼,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미션저널 (1996 가을), 5-6.

6) 전호진, 인종갈등의 시대와 미전도 종족선교 (서울: 영문, 2001), 60.

7) Ibid, 166.

8) K. P. Yohannan, 다가오는 세계 선교의 혁명, 조은혜 역 (서울: 죠이선교회, 1991), 169.

회적 관점이 아니라 총체적인 선교적 관점에서 선교해야 하며 성경적인 기반 위에서 이러한 선교를 시도함으로써 선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최근 십여 년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찰력 있는 글들이 교회 안팎으로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들이 주로 인권과 복지 차원의 문제들을 다루거나 현장보고 형식의 간단한 소개 정도의 글들로 주로 교회의 사회사업 및 구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의 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순수하게 선교적 관점에서 제시된 글들은 많지 않다. 이것은 아마도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하는 선교 단체 혹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선교관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젠 외국인 근로자 선교도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본 논문은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대한 선교적 원리와 구체적인 선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한국 교회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한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 범위는 1장 서론에서는 연구 동기 및 연구 범위와 방법을 다루며 2장에서는 교회와 선교에 관한 부분을 다루면서 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선교해야 할 신학적인 당위성을 언급하고 3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한 선교전략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4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하여 그들의 일반적인 정황과 성경에 나타난 외국인 근로자들에 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5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한 선교 전략에 따른 효과적인 양육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인 양육과정을 소개하고 이어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양육에 관해서 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6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정책에 대한 제언을 소개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다양한 영역을 개척하는 데 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끝으로 7장에서는 결론을 맺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하되, 성경과 선교신학에 관계된 문헌을 바탕으로 하며 선교 전략적인 면과 선교를 위한 양육에 관해서는 필자의 현장 사역의 경험을 토대로 사용하였던 방법과 앞으로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외국인 선교에 도움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 2 장 교회와 선교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 장에서는 교회와 선교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먼저 교회의 개념과 본성과 선교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와 목적을 논의하는 가운데, 교회가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교회

교회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소개되었다. 이것은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선교라는 입장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정의하려 한다.

1. 교회의 개념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도는, 헨드리투스 벌코프(H. Berkhof)의 말처럼 ‘에클레시아’의 어원과 관련해서 살피는 것이다.⁹⁾ 이 말은 ‘에크’와 ‘칼레오’에서 연유한 것으로 신약성경에는 이 용어가 115번 쓰이고 있다.¹⁰⁾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주후 1세기 희랍의 대중 사회에서는 의사 결정을 위한 지역 사회의 정치적인 회합 또는 소집된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는 매우 평범한 세속적 단어였다.¹¹⁾ 세

9) H. Berkhof,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Eerdmans, 1985), 347.

10) 한국복음주의 선교학회, *에큐메닉스* (서울: 성광문화사, 1988), 430.

11) Ibid., 347.

속 희랍어에서는 전령을 통해 자신들의 집에서 시장으로 '불려 나온' 희랍 도시 국가의 자유 시민들의 모임을 의미했다.¹²⁾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사용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란 용어는 별난 것이 아닌, 그저 비공식적인 많은 모임들 가운데 또 하나의 모임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자격이 보여주듯이 그들은 이 말을 하나님의 무리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그들 자신을 공동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특별하고도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말의 신약 성경상의 용법을 직접 세속 헬라어에서 추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 개념의 척도가 되는 것은 헬라어의 어원을 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떤 말을 사용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약의 '에클레시아'의 뿌리를 구약의 '카할'(קהל)과 '에다'(עדה)에서 찾는다. 루이스 벌코프(L. Berkhof)의 지적을 따른다면, 이 두 단어는 빈번히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래는 엄격히 말해서 서로 동의어는 아니었다.¹³⁾ 아마도 '에다'는 '약속에 따라 모이는 모임'을 말한다. 반면 '카할'은 백성들이 실제로 모인 모임을 말한다.¹⁴⁾ 특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소집되었던 이스라엘의 '회중'이나 '집회'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신 4:10; 9:10; 18:16; 31:30; 사 20:2). 그런데 중요한 것은 Septuagint(LXX)에서 '카할'이 대개 '에클레시아'와 '수나고게'로 번역되어 있는 반면에, '에다'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수나고게'로 번역되었으며 특히 LXX에 나오는 100번 정도의 '에클레시아'는 거의 어디서나 '카할'인 반면, '에다'가 '에클레시아'로 번역된 일은 결코 없다는 점이다.¹⁵⁾ 따라서 신약의 '에클레시아'는 구약의 '카할'에 더 가깝게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약의 '에클레시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가 일차적으로 담겨 있다.¹⁶⁾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부름 받은 무

12) Hans Küng, 교회 (서울: 분도출판사, 1995), 85.

13) L. Berkhof, 기독교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811.

14) Ibid., 811. 에다(עדה)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신명기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으며, 그 이후의 책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카할(קהל)은 역대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풍부하게 사용된다. 수나고게(συναγωγή)는 70인 역에서 에다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번역어로 사용되었으며, 모세 오경의 경우에는 카할의 번역어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성경의 후기에 속한 책들에 따르면 카할은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로 번역된다.

15) R. Bultman, 신약 성경신학, 허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3), 35.

리들의 모임이요,¹⁷⁾ 한스 쿡(Hans Küng)의 말처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¹⁸⁾이다. 따라서 초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이어 받음으로써, 의식적으로 자기들이 참 하나님의 집회요, 참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종말의 참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¹⁹⁾

한편, 에드문트 클라우니(Edmond P. Clowney)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²⁰⁾ 그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근거로 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라고 보았다.²¹⁾

2. 교회의 두 본성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임과 동시에 죄 많고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인간들의 교회이다.

첫째, 교회의 신성은 성경이 교회를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고전 11:22), ‘하나님의 집’(고전 3:9), ‘하나님의 성전’(고전 3:16-17; 베전 2:4-5),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 ‘하나님의 백성’(베전 2:9-10), ‘하나님의 양’(베전 5:2-4) 등이다. 이러한 표현들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 교회의 인성은 초대 교회가 결코 완전하지 않았으며 계속 자체의 개혁을

16) εκκλησια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동사 καλεω (실제 어근은 수동태인 κλησια임)에서 나온 것으로, ‘...으로부터’ 또는 ‘...에서’를 뜻하는 접두사 εκ가 붙어, 우연히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부름받은 자들로 구성된 모임을 암시하고 있다.

17) Michael Griffiths,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서울: IVP, 1994), 18. 마이클 그리피스(Michael Griffiths)는 이스라엘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몇 가지 측면들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했다. “그들은 불러내어졌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부름 받았으며, 그들은 장래의 유업을 얻도록 부름 받았으며 그들은 하나님 소유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함께 부름 받았다.”

18) Ibid., 87.

19) Ibid.

20) Edmond P. Clowney, The Church (Downers Grove: IVP, 1995), 29.

21) 김성욱, 선교적 교회론, 총신대학교 강의안, 1999, 17-18.

추구해야 할 존재임을 통해 알 수 있다. 뉴비긴(Newbegin)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솔직한 사람이라면 교회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제도로서, 교회사 속에서 교만과 탐욕, 나태와 비난받을 만한 무분별한 오류를 범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어떻게 죄 있는 이들로 구성된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어떻게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²²⁾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인성이 교회의 오류를 합리화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한다. 이는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완전케 하고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3. 교회의 선교적 특성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존재나 독특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 받은 백성이며(고전 1:1-2; 엡 2:9) 선택된 백성(벧전 2:9-10)이고 하나님의 계약에 관계된 백성(출 6:4-5)이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딤후 2:14). 하나님의 부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는 세계 선교를 존재 목적으로 해야 한다. 채은수는 “교회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순종하여야 할 백성이 교회라면 교회는 세계 선교라는 주님의 의지를 받아들여야 마땅할 것”²³⁾이라고 말했다.

오를란도 코스타스(Orlando E. Costas)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공동체이다. 즉 교회의 근본적 성격은 오직 세상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선교적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의 교회와 교회의 소명 사이에는 본질적이며 불가분리적인 상호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기적적인 구속의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활동을 펼쳐

22) Michael Griffiths,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 42-43.

23) 채은수, 선교학총론 (서울: 기독지혜사, 1991), 75.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산물일 뿐 아니라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이 태어나게 된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불러진 공동체이다.²⁴⁾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 공동체였다. 선교와 교회는 일치되어 있었다.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었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였다. 만일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면 기독교는 현재까지 생존해 오지 못했을 것이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선교는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기에 교회 공동체를 선교에 사용하시는 것이다.

독일의 선교학자 칼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은 “교회의 본질은 전반적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의 참여와 세계 구원을 위한 그의 선교 참여이고 교회는 선교를 통해 존재하며 선교는 교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이며 유일한 존재 이유”²⁵⁾라고 정의하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의무가 세계선교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로저 헤드런(Roger E Hedlund)은 성경적 선교신학에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보어(Boer)의 지적²⁶⁾에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교회가 선교적 명령을 수행할 의무를 부수적으로 가지고 주로 교회와 찬양을 위해 모이는 한 어떤 커다란 선교 역량의 발휘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끊임없이 성령은 교회가 증거 하도록 만드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회들은 그 증거로 말미암아 세워진다.”²⁷⁾ 계속해서 그는 “신약 성경의 표현 방식에 의하면 교회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마 28:20)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요 20:21). 그리스도는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하였으며 교회에게 선교적 사명을 위임하였다(요 17:18; 20:21)”²⁸⁾고 말한다.

요한네스 블라우(Johannes Blauw)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는 선교가 아니면 선교가 아니”²⁹⁾라고 교회의 선교적 속성을 강조했다며, 풀러 신학교의 석좌 교수인 찰스 벤 영

24) Orlando E. Costas, The Church and Its Mission (London: Tyndale, 1974), 35.

25) 신동우, 선교학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3), 90-91.

26) Harry R. Boer, Pentecost and Mission (Grand Rapids: Eerdmans, 1961). 김성욱, 선교적 교회론, 51쪽에서 재인용.

27) Roger E. Hedlund, 성경적 선교 신학, 송용조 역 (서울: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91), 318-319.

28) Ibid, 319.

29) Johannes Blauw,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A Survey of the Biblical

겐(Charles Van Engen)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서 교회의 “보내심을 받음”과 ‘사도성’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사도들이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처럼, 교회는 주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고 말했다.³⁰⁾ 도널드 밀러(Donald Miller)는 “선교란 교회의 일부분만이 실행하는 특수한 기능이 아니라 그것은 전 교회적으로 실행해 가야 하는 사업이다. 선교란 곧 전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을 표현해 가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³¹⁾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교는 교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이며 유일한 존재 이유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 속에 내포된 것을 그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다.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이다.

제 2 절 선교

교회는 존재하는 동안 선교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선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이해하고 보다 진보적인 사람은 보다 포괄적인 부분에까지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적용해 왔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선교 전략을 기술하기 전에 먼저 성경신학적인 바탕에서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1. 선교의 개념

‘선교’(mission)라는 용어는 라틴어 ‘mitto’(to send)에서 유래된 것으로 헬라어

Theology of Mission. 김성욱, 선교적 교회론, 51쪽에서 재인용.

30)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운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103.

31) Donald Miller, The Nature and Mission of the Church (London: John Knox Press, 1957), 69.

‘아포스텔로’에 해당하며 그 뜻은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³²⁾ 존 영(John M. Young)은 선교를 정의하기를, “선교라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과 토착교회의 설립, 하나님 왕국의 출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의 완전한 말씀을 모든 나라에 선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자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³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선교의 대명령의 유일한 주제는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삼는 데 있다”³⁴⁾고 강조했다. 존 스토틀(John R. Stott)는 성경의 교훈과 칼빈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선교 개념을 제시했는데, 그는 복음전도와 사적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선교 개념을 주장한다.³⁵⁾ 선교란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을 복음에 접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 생활 전역의 복음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고원용은 “선교란 문화와 언어가 다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³⁶⁾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교란 타문화권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의 모든 활동’으로 본다. 즉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사업, 의료 사업, 개발 사업, 구제 사업 등 모든 교회의 봉사 활동을 선교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선교를 구분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문화와 언어가 동일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HM-1으로, 문화와 언어가 동일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FM-1으로, 문화와 언어가 비슷한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HM-2으로,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대해서는 HM-3으로,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FM-3으로 나누고 있다.³⁷⁾ 이런 기준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선교는 HM-3로 구분할 수가 있다.

2.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선교의 책이다.³⁸⁾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의 선교는 구심적(centripetal)이며, 신약의 선교는

32)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0), 20.

33) John M. Young, 선교의 동기와 목적, 김진홍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9.

34) Donald A.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John M. Young, 선교의 동기와 목적, 9에서 재인용.

35) 전호진, 선교학, 21.

36) 고원용, 선교 사명자 안내 (대구: 보문출판사, 1979), 22-30.

37) 전재옥, 타문화권 선교이해 (서울: 충청교회 세계선교연구원, 1995), 9-10.

원심적(centrifugal)이라는 것이다.³⁹⁾ 그러나 선교의 본질은 같다. 따라서 올바른 선교 개념의 정립과 적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

성경학자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선교의 목적과 메시지, 그리고 선교활동의 자취 등을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⁴⁰⁾ 이런 차이점은 '선교'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⁴¹⁾ 그러나 구약 성경은 선교적인 책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선교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행복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⁴²⁾ 리처드 리더(Richard R. De Ridder)는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Disciplining the Nations)에서 구약의 선교를 생각하지 않고는 신약의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선교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구약이 의도한 복음의 우주적 성격을 실천적으로 옮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다.⁴³⁾

구약성경을 통해서 선교 명령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바빙크(J. H. Bavinck)는 구약 선교의 기초는 첫째는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로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난 지상명령의 필연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 둘째로는 구약성경의 창조관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고, 셋째로는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강력하게 금하시고 있으며, 넷째로 이스라엘의 성별은 열방 구원에 대한 일시적인 기초라는 점이다. 즉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타민족들을 구원시키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⁴⁴⁾

38) 전호진, 선교학, 38.

39) Bengdt Sundkler, The World of Mission (Grand Rapids: Eerdmans, 1965), 15-16.

40) 전호진, 선교학, 38. 구약에 선교 명령이 없다고 하는 학자로는 화란의 선교학자 블라우(Blauw), 독일의 신학자 겐시헨(Gensichen)과 한(F. Hahn) 등이 있다.

41) 김명혁 편,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97), 43.

42) Hebert Kane, 선교신학의 성경적 기초,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4), 18-19.

43) Richard R. De Ridder, Disciplining the N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1), 4-5.

44) J. H. Bavinck, 선교학 개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8), 32-35.

또한 전호진은 구약의 선교에 대해서 첫째로 구약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창조 기사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둘째로 타락의 사건은 선교의 원인이 되게 하며, 셋째로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으며 넷째로 아브라함의 소명은 구약에 나타난 첫 선교의 명령이며, 다섯째로 이방인이 유대 나라에 가입된 것은 장차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암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섯째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절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한다.⁴⁵⁾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과 애굽만이 관계된 것이었으나 실상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범 세계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경고하신 출애굽기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⁴⁶⁾

따라서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적이요, 에큐메니칼적이요, 선교적'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다.⁴⁷⁾ 즉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실상은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하여 선택된 백성으로, 그들의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선포하는 도구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 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⁴⁸⁾ 이것은 구약성경의 기본적인 3개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3절로, 열방에 복을 내리시는 그분의 계획을 선포하라는 것과 둘째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로 복의 통로로써 그분의 제사장 직분에 참여하라는 명령과, 셋째로는 시편 68편으로 만국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증명하라는 요구이다.⁴⁹⁾

더욱이 구약성경 선지서에서도 선교적 사상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선지서에 나타난 선교 사상은, 첫째로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다(사 2:1-4; 민 4:1-4; 슥 8:20 이하).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도 세계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사 56:7)이라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45) 전호진, 선교학, 39-42.

46) J. H. Bavinck 선교학개론, 54.

47) 전호진, 선교학, 39.

48) J. Edward Young, The Study of Old Testament Theology Today (Oxford: James Clark and Co. Ltd., 1958), 61.

49) 김활영 편, 세계선교의 비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1999), 26.

둘째로 선지서의 선교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원을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순드 클러에 의하면, 구심적 선교 사상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선교의 중심 사상이라고 한다. 셋째로 선지서의 선교는 종말적 사건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넷째로 선지서의 선교는 메시아의 고난을 통하여 성취될 사건이라는 점이다.⁵⁰⁾ 특히 선지서 중 요나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 이시며, 이방인의 심판과 구원을 의도하시는 선교적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전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선교 활동으로 꼽을 수 있다는 것이다.⁵¹⁾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선교를 생각할 때, 구약 선교의 또 다른 특징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월드런 스코트(Waldron Scott)가 사회 정의와 세계 선교를 향한 제자도에서 말한 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선교는 보편적이고, 선교의 목적은 정의”⁵²⁾라는 부분이다. 그는 아모스 5장 24절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를 짓밟거나 궁핍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도덕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선교는 매우 균형잡힌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

신약 성경은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선교의 책이다.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새롭게 함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방인이 자발적으로 나아옴과 세계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메시아적 구원은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⁵³⁾ 선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⁵⁴⁾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50) 전호진, 선교학, 47-50.

51) Ibid., 52.

52) Waldron Scott, 사회 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김선규 역 (서울: 두란노, 1992), 126.

53) J. H. Bavinck, 선교학개론, 55.

54) Ibid., 69.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마귀를 멸망시키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⁵⁵⁾ 이런 예수의 사역은 그의 생애와 사상 및 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선교와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생애와 교훈 및 활동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고난과 부활 및 승천은 후대에 선교 메시지의 중심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방인들이 성전되신 예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로메이어(E. Lohmeyer)는 예수는 성전을 깨끗케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있는 말을 하고 있다.⁵⁶⁾ 이처럼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명령을 하신 후 승천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선교의 대헌장(Magna Charta of Mission)으로 부르고 있는데, 4복음서는 주님의 이 명령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마태복음은 선교의 권위를, 마가복음은 선교의 범위가 전세계적임을, 누가복음에서는 선교의 순서를, 그리고 요한복음은 선교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영적 자격과 요구를 각각 강조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며, 이 명령은 2,000년 선교 역사에서 선교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져 왔다는 것이다.⁵⁷⁾ 따라서 신약의 4복음서는 선교적 사실의 근거이며, 선교적 설교의 산 기록이다.

한편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선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 부분(1-7장)에서는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을, 두 번째 부분(8-12장)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진과정을, 그리고 마지막 부분(13-28장)에서는 기독교의 확산을 다루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선교적 키워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두 단어, '능력'과 '증인'인데, 이 단어들은 사도행전 전체의 모티브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레함 스크로기(Graham Scroggie)는 너의 성경을 알라에서 네 가지 개념을 지적했는데, 첫째는 기독교 증거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이고, 둘째로 기독교 증거의 유일한 매개체는 교회이며, 셋째로 기독교 증거의 궁극적인 범위는 세상이고, 넷째로 기독교 증거의 성공 비결은 성령이라고 밝히고 있다.⁵⁸⁾ 따라서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

55) 김명혁 편, 선교의 성서적 기초, 70-71.

56) 전호진, 선교학, 61-62.

57) Ibid., 66.

58) 김명혁 편, 선교의 성서적 기초, 93.

도께서 하신 일로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⁵⁹⁾ 또한 사도행전의 선교는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사건에 속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신약성경에서 바울의 선교를 빼놓을 수 없는데, 바울은 성령의 지도 밑에서 성령의 지시와 통제에 복종하는 융통성 있는 운용법을 선교 사역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 선교의 특징은 첫째로 선교 본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으며, 두 번째로 바울은 네 개 지역(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에 자신의 노력을 국한시켰으며, 세 번째로 바울은 대도시 선교에 주력했으며 네 번째로 회당을 복음전파의 본거지로 삼았으며, 다섯 번째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좋아했으며, 여섯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설립할 만큼 긴 시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었으며 일곱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선교학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그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는 점이다.⁶⁰⁾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이런 선교적 특징들은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교 보고서이기도 하다.

이처럼 신약에 나타난 선교는 주로 원심적인 성격을 띤 선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도 선교의 구심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4복음서는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자발적으로 나아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한다. 동방박사의 방문(마 2:1-12), 가버나움 백부장의 방문(마 8:5-13), 헬라인의 방문(요 12:20-23), 사마리아인들의 집단 개종(요 4:39) 등은 이방인들의 자발적인 도래를 예언한 구약 예언의 성취이다. 또한 신약에서의 선교는 그룹 단위의 선교였고 동역의 원리가 잘 나타나며 선교와 문화의 문제를 잘 해결하였고 전략적인 지점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선교의 동기는 영혼 구원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다.

3. 선교의 목적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대위임령의 핵심은 '제자 삼는 것'이다. 사도들은 이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고 회심케 하여, 그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였다. 이처럼 복음에 따라 세워진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사도들은 하나님의 집(딤후전 3:10), 하나님의 권속(엡 2:11),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

59) J. H. Bavinck 선교학개론, 56.

60) 김명혁 편, 선교의 성서적 기초, 127-146.

신령한 집(벧전 2:5) 등으로 묘사하였다.⁶¹⁾ 김의환은 “선교의 목적이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그 사회의 문화적, 사상적 심층구조까지 복음을 통한 개혁을 초래하여 전 문화 영역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게 하는 것”⁶²⁾이라고 하였다. 즉 인간 영혼(soul of man), 전인격(whole of the person), 전인(entire man)적 구원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교는 제자 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미션(mission)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보내기 위한 제자화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미션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⁶³⁾

또한 선교는 대규모로든 일대일로든 제자 삼기에 속하는 일이다. 제자 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써 알 수 있는데, 로버트 콜만(Robert. E. Coleman)은 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를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⁶⁴⁾ 첫째로,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셨다. 둘째로, 선택된 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시고 시간을 가짐으로써 훈련시키셨다. 셋째로, 훈련받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헌신하도록 하셨다. 넷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어 성숙할 수 있게 하셨다. 다섯째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 여섯째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한 정도에 따라 위임시켜 주셨다. 일곱째로, 맡긴 사역을 점검하며 인내하면서 가르치며 도우셨다. 여덟째로,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면서 지속적인 세상과의 재생산의 사역을 명하셨다.

이상에서 볼 때 선교의 목적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들이 전인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재생산의 사역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사회적, 문화적인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61) 전호진, 선교학, 80.

62) 김의환, 복음과 역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57.

63) 이태웅, 제자훈련은 이렇게 (서울: 두란노, 1986), 17.

64) Robert E. 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22-23.

제 3 장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선교 전략의 필요성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은 “전략이란 이미 세워진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선택된 수단”⁶⁵⁾이라고 말했다. 전략은 성공과 관계된다. 전략은 성공적인 선교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선교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취하는 수단,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취하는 수단, 또는 방책이 바로 선교 전략이다.⁶⁶⁾

선교전략의 삼대 요소는 성경 중심, 효율성, 적응성이다.⁶⁷⁾ 성경 중심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궁극적인 목적임을 확신하고 주님의 사업을 주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다. 효율성은 청지기로서 최선의 인자기용과 최선의 재정자원의 활용과 최선의 시간 이용을 말한다. 그리고 적응성은 시대변화에 대해 조정을 해 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 교회는 타문화권에 대한 선교에 열정을 쏟는 것 이상으로 동일 문화권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최선의 선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선교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제 1 절 외국인 근로자 선교정책 수립의 필요성

어떠한 기구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기본방침과 운영조직, 이에 수반되는 인원 배치 계획과 자금 동원, 그리고 이를 통하

65) Peter Wagner,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Ventura: Regal Books, 1987), 26.

66)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3), 268.

67) Peter Wagner,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12.

여 수행코자 하는 어떤 정책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 계획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선교 계획이다. 즉 교회나 선교 단체는 먼저 어떤 곳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고 어떤 방법으로 접촉하며 얼마의 재정을 투자하여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로는 인재이다. 조직은 어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하나의 팀워크(team work)인 것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교를 할 때 사명이 있는 인재로 고도의 훈련을 통해 양성하여야 하는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

셋째로는 선교 사업을 위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한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교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선교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외국에서 헌신자를 불러와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기발로 들어온 이들을 잘 살피면서 조그만 관심과 재정을 투자하여도 극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로, 선교 계획은 효과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1910년에 IMC(International Mission Council)라는 국제적인 선교 협의회를 만들어 각 나라나 선교사가 보내오는 보고를 종합하여 각 산하 선교단체에 보냄으로써 거기에 적합한 선교정책을 세움으로써 유기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게 한다.⁶⁸⁾ 정확한 정보, 다양한 여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동태, 작업환경, 법적 복지적 정부 정책의 변동 등을 알 때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의 활용과 분배를 위해 그리고 개 교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전문적인 선교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와 전문적인 선교단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현재 한국 내의 선교단체는 수백 개에 이른다. 이러한 한국교회가 개교회적으로 산발적으로만 선교를 한다면 오히려 비효과적이고 실적 위주의 과시적으로 보이기 쉽

68) 강문석, 선교정책론 (서울: 도서출판 칼빈서적, 1992), 123.

고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외국인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교회는 각기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역을 하며 일정한 계획과 정책에 따라 동반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한 개인, 한 교회, 한 선교단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계획성과 각 분야에 서로 연결되어서 사역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 2 절 선교 역사에 나타난 선교 전략의 예

선교 전략은 시대와 선교 대상지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그 전략들을 대략 몇 가지로 살펴보면, 유럽 기독교인들의 십자군을 통한 모슬렘지역에 대한 무력적인 선교⁶⁹⁾나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제국들의 식민지 정책에 선교가 정부도구로 이용되거나 정부 보호 아래 아니면 갈등을 겪으면서 선교를 할 때도 있었다.⁷⁰⁾ 마테오 리치(Matteo Ricci)는 중국 선교에서 중국의 문화 근본사상이나 중국인의 생활 양식들을 수용하며 유교사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가진바 있으며, 19세기 루퍼스 앤더슨(Rufus Anderson)과 영국 교회 선교회(Church Mission Society) 총무 헨리 벤(Henry Venn)이 발전시킨 자립, 자치, 자력 전파의 3자 원리를 세계선교의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하여 2차 대전까지 선교 전략으로 삼아 오기도 했다.⁷¹⁾ 또한 19세기의 선교 전략은 개인중생과 교회설립에 이어 사회개혁을 통한 선교로 세 가지 방법 즉, 의료사업, 교육사업, 문맹퇴치사업 등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⁷²⁾ 1910년 에든버러(Edinburgh)에서 열린 세계 선교회의에서는 “비기독교 세계”를 연구하는데 목표를 두었는데, 비기독교 세계에서 의 선교와 교회들의 연구를 통하여 상호협력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으며,⁷³⁾ 1938년 마드라스(Madras) 선교회의에서는 선교지의 문화와 종교유산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서 복음 선교할 것을 구체화하기도 했다.⁷⁴⁾ 이외에도 지난 선

69) William R. Cannon,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204-205.

70) Justo L. Gonzalez, 근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89), 117.

71) 전호진, 선교학, 233.

72) Ibid., 289.

73) 한국복음주의 선교학회 편, 에큐메닉스 (서울: 성광문화사, 1988), 235.

교역사 속에 수많은 선교 전략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개발 실행되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씨와 파종자는 같아도 밭에 따라 결실이 다른 것처럼(마 13:3-9; 눅 8:10-15), 복음과 선교사는 같아도 선교 대상지에 따라 그 결실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선교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

제 3 절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선교 사역의 타당성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선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좋은 목회자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양무리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렵고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평신도 선교사로서 양육하여서 귀국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현지인을 선교사를 보냄으로 외국인인 우리들이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1. 성경적인 면에서의 타당성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행 2:10; 6:5; 13:43). 이들 중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는 대표적인 인물도 있다.⁷⁴⁾ 또한 성경에는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기록도 있다(행 2:1-41). 그리고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행 6:27-36). 이때 베드로나 빌립 집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실제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벌써 교회가 있음을 알 수 있다(롬 1:7, 10). 또한 지금까지 이란, 이라크 등지에 존재하는 교회는 오순절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례들은 지금 우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방식이 베드로처럼, 혹은 빌립 집사처럼 선교하는 방식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그 전례가 있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 사역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

74) 전호진, 선교학, 153.

75) Ibid., 55.

람들이며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 선교해야 할 큰 선교의 대상임은 틀림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선교는 우리 선교사가 외국선교지로 가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독교 환경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복음화하면, 우리들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다는 선교 비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

2. 문화적인 면에서의 타당성

외국 선교사가 선교 현지를 가서 당면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와의 충돌이다. 타문화권 현장에서 충돌되는 문화는 의식주, 가치관, 신앙, 세계관 등을 포함한다. 언어는 문화를 표현하는 도구로 문화를 뛰어넘을 때 극복해야 하는 요소이다. 문화충격에서 빠른 회복은 새 문화 적응에 절대 필요하다. 또한 선교지 문화의 적응과 문화충격의 극복은 피선교지 현지인들과의 오해를 피하게 해준다. 선교지 현지인들과 적절하고 친밀한 관계 조성이 선교의 선결 조건이라면 그들과의 문화적 차이로 오는 오해는 문화적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선교사가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극복해야 하는 일은 선교에서 절대적 요구이다. 랄프 윈터(Ralph Winter)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정치적으로 구분된 국민 혹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언어적, 인종적으로 구분된 사람들의 집단(people group)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선교사들이 넘어야 할 문화적 거리로 문화 차이 극복의 절대성으로 해석한다.⁷⁶⁾ 이는 선교 현장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할 때 비로소 현지인들의 가치관과 세상에 대한 견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옛 신념들이나 관습들을 거부하거나 수용하기에 앞서 잘 점검해 보는 가운데, 그 결과로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선교지 문화 속에 비판적 상황화(contextualization)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⁷⁷⁾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언어와 문화 장벽의 극복의 절대 요구 속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사전교육을 받고 현지에 간다 해도 현지의 문화 즉 그들의 주어

76) 충현교회 선교연구원 편, 세계 기독교 운동에 관한 관점 (서울: 충현교회 출판부, 1996), 76.

77)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김동화 외 3인 역 (서울: 죠이선교회, 1998), 264.

진 환경 속의 특유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요원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외국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의 문화를 표현하는 생활양식 습득에도 많은 지체를 거듭하였다. 특히 서구 선교사들의 현지에서의 현지인들과의 극심한 생활 격차 등은 언어와 문화 충돌과 더하여 큰 격차를 형성하였다. 종종 선교사들은 선교의 큰 걸림돌이 된 격차 해소 방안으로 병원설립, 학교설립 등의 사회사업의 대처로 현지인들에게 좋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선교를 위한 관계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현지인이 기독교인으로서 현지에 귀국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준다면, 외국인 선교사가 겪어야 하는 수많은 갈등과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그리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등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현지인의 선교활동은 외국인 선교사 보다 크게 효과적일 것이다.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부름 받았던 반면, 갈리리 유대인이던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하여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어떤 선교에 효과적인가 하는 하나님의 선교전략으로 볼 수 있다.

3. 현실적인 면에서의 타당성

지금은 평신도 현지인을 더욱 필요로 하는 시대이다. 특히 현대 선교의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는 제3세계의 국가들의 미국 등 서구 선교사들의 거부는 매우 민감한 문제들이다. 대개 이런 나라들은 과거 식민지 경험을 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들은 선교를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⁷⁸⁾ 예를 들어서 모슬렘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과거 십자군이 남겨놓은 상처와 증오 속에서 모든 기독교 선교에 대하여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적으로 약 인구 절반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선교에 문을 닫고 있기에 전통적 모습의 선교사로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아시아 선교의 큰 수확지로 지목되는 중국은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종교에 대한 견해를 공식화하고 있다. 종교는 과학과 문화에 의하여 해방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주장되는 잘못된 세계관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선교에 대한 거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선교의 부정적 환경에서 1980년 세계선교를 위한 로잔 회의(Lausanne Committee)는 중국 선교를 위한 몇 가지 제안들에서 평신도들의 중국 선교를 강조하였다. 즉 기독교에 대하여 경직된 중국

78) Ibid., 382.

내의 정치적 환경을 완화하는 데는 평신도 사업가, 과학자, 기술자와 의사 등이 중국 현대화에 앞장서면서 기독교의 사랑과 믿음을 보여 마침내 중국이 기독교에 문을 여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중국은 사실상 외국에 있는 중국인을 선교하여 현지선교사로 보내는 방법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뿐 아니라 다른 비기독교 국가에서도 평신도들의 선교사역은 중요하다. 이미 그 중요성은 존 네비우스(John Nevius)가 역설한 바 있다. 일례로 그의 제안을 잘 받아들인 한국은 그렇지 않았던 중국에 비해 크게 교회가 부흥되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만들어서 선교해야 할 필요한 그 첫 번째 이유는 목회자 선교사의 절대적인 부족에 있다. 이것은 비기독교 지역에서의 교역자 출신의 선교사의 수가 기독교 지역에서의 선교사의 약 십분의 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세계 인구 중 약 25억이 복음을 듣지 못했으며, 인구 1만 명당 1인의 선교사를 필요로 한다면, 대략 25만 명의 선교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부족한 사역자들을 평신도 선교사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는 적은 경비로도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⁹⁾. 이는 평신도들의 선교는 대개 자비량 선교사로서 자기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 선교를 하기에 유익하며, 선교사의 부족을 채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개 삼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이런 비용 중 극히 일부만 제공해도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나라의 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 특히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분류된 나라들에서는 목회자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들 나라에 입국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게 여기는 비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받은 셈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들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미 이런 조건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선교에 헌신토록 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이라고 생각한다.

79) 박관구, "외국인 근로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빛과 소금, 1998년 2월호, 132.

제 4 절 외국인 근로자 양육 선교의 필요성

문화나 언어가 전혀 다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총체적인 선교가 필요하다.⁸⁰⁾ 여기서 총체적 선교라 함은 복음선교에 있어서 복음전도와 복음전도에 필요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 등을 포함한 사역을 말한다. 총체적 선교는 상황에 따라서는 복음전파로만 100퍼센트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당장 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과 같은 고통 덜어주기에 100퍼센트 투자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한다. 즉 외국인 근로자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까지도 채워주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주의적인 선교로서 전통적으로도 복음전도를 위해 의료사역, 구제사업 등과 같은 활동을 병행해 왔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상황에 따른 공의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여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복음이 전달되는 선교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선교하는 교회나 선교단체는 그들의 삶의 구조를 결정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확인하여 그리스도인들, 지역 교회들, 선교 기관들이 특별히 도와야 한다.⁸¹⁾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교회만 나오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신앙 안에서 성령의 위로를 찾게 하는 것으로만 선교가 머무르면 안 된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복음전파와 연결되어서, 선교에 대한 확고한 소명을 갖게 하고, 그들의 모국에 돌아가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양육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를 양육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1. 외국인 근로자의 선교사화

선교에는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가 선교사를 양육하여 파송하는 고전적이며 전통적인 선교양식을 수행해 왔다.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 등은 이러한 선교의 시작이며 현재까지 교회는 이 방법을 통하여 주로 선교의 일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성경 사도

80) 최원진,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 (석사 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52-53.

81) Harvie M. Conn, 복음전도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3), 69.

행전 8장에는 매우 기이한 일을 보게 된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 중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까지 가기를 주님께 명령받고 성령의 지시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이사야서의 교육과 세례를 베풀어줌으로써 완전한 선교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행 8:26-39). 후일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전파에 일익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므로 빌립 집사가 내시를 전도한 것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전도한 것보다 내시를 통하여 에티오피아를 향하여 간접선교를 감당하였다는 데서 또 다른 의미의 선교를 발견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들은 대개 각기 자국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 견줄 만한 잠재력을 지닌 최소한 고졸학력을 지닌 인테리들로 현지에서도 만나기 힘든 재목감들이다.⁸²⁾ 우리가 이들을 복음화시키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면, 장차 그들이 자국에 귀국할 때는 훌륭한 현지인 선교사로서 그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2. 선교 방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한 선교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구심적인 선교와 원심적인 선교를 조화롭게 실행해야 하며 특히 우리를 통해서 이들을 제자화 하여, 이들이 자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될 때 외국인인 우리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해외 타민족 선교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선교적 접근을 하여야 한다. 즉 그들의 전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들로 본국에 가서도 선교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켜 제자화하는데 목표를 두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들에게 총체적인 복음을 총체적인 선교⁸³⁾ 혹은 전인적인 선교(holistic mission)⁸⁴⁾로 제자화하여 그들의 미전도 족속들에게 복음화를 가속화시키며 한국교회로서도 선교사 훈련의 장과 도시빈민선교의 가능성을 열며 우리의 복음의 빛진 자로서의 빛을 갹아야 한다.

82) 박관구, "외국인 근로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132.

83) 한국전문인 선교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서울: 도서출판 창조, 2000), 92. "총체적이라 함은 전방위적 선교를 의미하는데, 평신도와 목사, 선교단체와 교회 그리고 합의체의 기능들이 순환적이고 원활하게 각자의 기능들을 감당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84) Ibid., 79.

가.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였고 성경에 흥미를 가진 자로서 성령은 그의 관심을 보시고 즉시 사마리아에서 사역에 열중이던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이끌어 그 내시를 구원하시고 본국으로 보낸 것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 요한복음 4장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선교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영생의 물을 이야기 할 때 그 물을 받기를 원하였고 다섯 남자와의 삶 즉 죄를 그대로 거짓없이 자복하여 주님의 구세주 됨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여인은 자기 동네에 들어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요 4:29)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현지 선교사의 역할을 한 것을 주의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외국인 중에 특히 복음에 대한 관심과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형식적인 신자(normal Christian)가 아니라 능력 있는 현지 선교사가 될 유망한 자원으로 볼 수 있다.

나. 제자화 교육을 실시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주님의 선교 대사명의 한 가지 주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제자 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특권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제자훈련에서 예외적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런 이들을 더욱 예수 제자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적 문화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는 세심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다. 선교지로 보낸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들 나라에 선교사로 재파송함은 선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내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명들을 감당하여야 한다.

첫째는 기도로 후원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한 도구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 하신다. 선교는 용이하지 않으며 불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오순절의 전혀 기도에 힘쓴 120문도의 행함은 결국 세계 복음화의 시초

가 되었다. 지난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위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은 모두 기도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⁸⁵⁾ 1790년부터 1830년에 이르는 영국에서의 대각성 운동은 기독교의 부흥을 위한 많은 여러 그룹들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현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도 이때 국가를 주님께로 드리는 월례기도회에서 철야기도로 헌신할 때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이교도의 개종방법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책임 지침서라는 작지만 강력한 책을 써서 근대 선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⁸⁶⁾ 이 영향은 결국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미국 전역에서도 신자들의 영적 부흥을 가져왔다.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선교 헌신자와 선교단체들이 생겨나면서, 19세기 세계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때 기도의 열매로 생긴 단체들이 기독교 소책자 협의회, 영국 성서 공회, 런던 선교 협회, 교회 선교 협의회, 뉴욕 선교 협회 등이다.⁸⁷⁾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기도가 모든 선교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크루세이드 세계 선교 책임자 덕 이스트만(Dick Eastman)은 선교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할 때, “기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지상명령 수행위원회’(Great Commission Fulfillment Committee)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이고 기도의 시간은 교제뿐 아니라 행동의 시간”⁸⁸⁾이라고 하였다. 즉 기도는 선교를 행하는 한가지 행위로 보았다. 기도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선교를 이룩하는 것뿐 아니라, 기도자를 거룩케 하고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 사명을 계속케 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둘째로 외국인 근로자를 선교사로 보낼 때, 보내는 자의 사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선교사역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이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한 거지와 눈먼 자들과 병든 자들과 굶주린 자들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존재하였다. 신약에 주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일들이 열 번이나 기술되어 있다. 현재도 세계 인구의 4억 내지 10억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 천만 명이 산업발전에 의한 식수 오

85) 김활영 편, 세계선교의 비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1999), 258.

86) Ibid., 126.

87) 충현교회 선교연구원 편, 세계 기독교 운동에 관한 관점, 53.

88) Ibid., 40.

염 등으로 죽고 있으며, 후자는 21세기의 물의 전쟁시대로 경고한 이들도 있다. 지난 10년 간 1,500만 명의 난민이 생겨났으며 수백만 명이 정치적으로 수감되어 고난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나 후원자들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양육해서 그들이 자비량 선교사(Tent Maker)로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복음사역에 필요한 선교기지, 즉 신학교 설립이나 복지시설 등 현지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는 지체 없이 후원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 모든 주는 일을 행한 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는 말씀을 격려와 소망으로 삼아 행할 뿐 아니라 선교의 기본적인 원칙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본질임을 재인식하고 주기를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나 단체에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현지 선교를 받는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갖고 대하지 않게 해야 한다.⁸⁹⁾ 또한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생활습관을 자기 나라에 가서도 누리려는 자세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셋째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교사로 보낼 때는, 한국에서 양육한 교회나 기관, 혹은 현지인 선교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특히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그 은혜의 분량대로 최대한 기독교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양육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야 한다.⁹⁰⁾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교사로 내 보냈을 때, 그들의 기능은 대략 세 가지로 기대하여 볼 수 있다. 그들에게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복음전파 사명으로 자생적 교회의 확산이며, 다음으로는 기독교 선교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차후 외국인 선교사의 선교사역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신학적으로 잘 훈련된 외국인 선교사들의 협력자로서 현지에서 문화나 언어의 갈등을 뛰어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복음 선교의 시간적 물질적 효용 면에 절대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외국인 선교사가 현지인을 교화시켜 선교사역을 하는 데 필요한 오랜 기간

89) 오가와 쿠니미쯔, 선교지에 산다 (서울: 성서유니온, 1985), 68.

90) Ibid., 74-75.

을 크게 단축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들에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은 선교현지 정치, 문화, 경제 등 제반 상황에 따라 별도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찰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사람들로 아직까지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그 개념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선교에 관해서 연구할 때, 먼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서의 이해와 성경에서의 이해 등을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다.

제 1 절 일반적인 고찰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유형, 실태, 선교현황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성경적 이해들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의 국제적인 명칭은 영어로는 'immigrant worker', 독일어로는 'Gastarbeiter'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들 용어의 쓰임새는 각각의 언어권 내에서도 아직 완전히 일치되고 있지는 않다.⁹¹⁾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foreign worker'로 부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ILO 협약 제97호와 제143호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을 목적으로 자신의 국적 이외의 다른 나라에 이동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합법적으로 입국이 인정된 자를 포함"⁹²⁾한다고 한정하고 있다. 즉 여기서는 국경 근로자, 자유직업

91) 김이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대학원, 1998), 7.

92) 참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97호와 제11호.

종사자 및 예술가의 단기간 입국,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단체나 기업의 요청으로 특별한 임무나 업무를 위해 잠정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개념을 국제노동기구의 정의를 포함하여, 합법적인 취업자는 물론 본래의 방문 목적과는 다른 불법 취업자까지를 포함하여 외국인으로서는 국내 산업에 고용된 자를 외국인 근로자로 취급한다.

2.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과 현황

외국인 근로자들의 선교를 위해서 먼저 그들의 유형을 바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외국인의 체류 양태가 합법적인 것이냐, 또는 불법적인 것이냐(법적 신분)에 따라 크게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로 구분할 수 있다.⁹³⁾ 현행 출입국 관리법은 합법적인 산업기술 연수와 취업관련 자격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취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 관리법상의 법적 신분에 따라 합법취업자, 산업기술연수생, 불법 체류 근로자로 그들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가. 합법취업자

출입국 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취업자를 말한다. 외국정부와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하는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와 유효한 사증을 소지하고⁹⁴⁾ 입국 공항만에 도착하여 출입국 관리공무원의 입국사증을 받은 후 사증상의 체류자격 또는 체류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하면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또한 외국인이 합법적인 취업사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외공관에 취업사증을 신청해야 하고,⁹⁵⁾ 사증발급권자인 법무부장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합법취업자들은 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출신들이 많은데 사전에 상대적으로 치밀한

93) 정호연, "외국인의 체류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행정대학원, 1991), 11-12.

94)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의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는 제외.

95) 외국인이 관광사증 등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사증으로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무절제한 취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허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계약과정을 거쳐서 비교적 유리한 노동조건 및 부대 고용 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취업하고 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생길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들은 극히 제한된 자격자들이며 대부분 고급 인력이거나 극히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의 별표 제12호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산업연수생은 원래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니지만 산업기술연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이 대폭 늘어나면서 연수 기간 중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하여 보다 조건이 좋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불법체류상태로 된 경우⁹⁶⁾와 연수기간이 종료된 뒤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상태로 남아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다. 불법 체류 근로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불법 체류자는 출입국 관리사법과 일반 형사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출입국 관리사법은 불법체류자를 여권이나 사증의 위조 또는 변조자로서 범법 행위로 입국이 규제된 자 등이 본명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함을 알고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을 위조, 변조하거나 타인 여권에 본인사진을 정교하게 갈아붙이는 등 수법으로 입국 또는 체류하는 자를 말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은 했으나 재외공관장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 기간이 경과한 자를 말하며, 또한 체류자격의 활동자로서 입국사증 또는 거류신고증상에 부여받은 체류 자격⁹⁷⁾ 외의 활동을 허가 없이 영세 제

96) 일반적으로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해서 받고 있는 임금보다는 불법 취업장에서 주는 임금이 약 2 - 3 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97)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관광, 상용, 고용 등 18개 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조업체 등에 불법 취업하는 자 등이 이에 속한다.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대개 처음부터 한국에서 취업할 준비를 하고 15일이나 3개월간의 체류만 허가되는 관광비자나 3개월간의 체류가 허가되는 친척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한국업체에 취업한 뒤 비자 만료 기간이 지나서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분류별 추이(1991-2000) (단위: 명)

구분	1991년	1993년	1995년	1996년	2000년
합법취업자	2,973 (6.6퍼센트)	3,767 (5.6퍼센트)	8,228 (6.4퍼센트)	14,217 (5.9퍼센트)	14,697 (6.0퍼센트)
산업기술연수		8,644 (12.9퍼센트)	38,812 (30.1퍼센트)	86,857 (36.1퍼센트)	74,807 (30.7퍼센트)
불법근로자	41,877 (93.4퍼센트)	54,508 (81.5퍼센트)	81,866 (63.5퍼센트)	139,480 (58.0퍼센트)	153,879 (63.2퍼센트)
계	44,850 (100퍼센트)	66,919 (100퍼센트)	128,906 (100퍼센트)	240,554 (100퍼센트)	243,363 (100퍼센트)

자료: 노동부 2,000년 내부 자료⁹⁸⁾

2000년 말 기준으로 공식 통계상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20만 2천여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⁹⁹⁾ 여기에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수를 감안하여, 이들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3분의 2수준을 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¹⁰⁰⁾

3.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 실태 및 문제점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체류자격 유형별(법적 신분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단, 여기서는 합

98) Ibid., 402.

99) 조선일보, 2000년 10월 7일, 40.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숫자는 올 2월 IMF 직전 수준을 넘어선 뒤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국내 총 체류자는 47만8435명이고, 이 중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신청한 '등록 외국인'은 19만 92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94년 말과 비교할 때 5년여만에 2.5배 가량 증가된 것이다.

100) 이만식,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2000), 390.

법 취업자에 관해서는 그들이 비교적 유리한 노동조건 및 부대 고용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외국인의 단기기술훈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최근 국내의 제조업 인력난을 감안하여 정부당국에서 편법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늘리고 자의적 규정적용을 하고 있어 사실상 편법적 외국인 고용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규모로 실시되던 산업기술 연수제도가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 제도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인데, 중소기업협중앙회가 주관단체가 되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란 등 총 15개국 27개 인력송출업체에서 연수생을 도입하였다.

〈표 2〉 송출국가별 연수생 입국 현황(단위: 명, 퍼센트)

국가	'94	'95	'96	'97	'98	총계	비율
네팔	793	195	282	333	167	1,769	1.8
미얀마	1,000	38	68	214	190	1,510	1.6
방글라데시	1,535	3,066	2,984	957	338	8,880	9.5
베트남	2,550	4,584	4,358	3,247	1,067	15,806	16.8
스리랑카	811	202	1,436	905	141	3,495	3.7
인도네시아	927	4,463	7,152	5,704	2,527	20,773	22.1
중국	1,924	1,392	2,050	1,391	567	7,324	7.8
중국(조선족)	5,669	2,195	2,901	1,928	807	13,500	14.4
필리핀	2,744	3,249	1,699	2,167	987	10,846	11.6
파키스탄	617	436	544	649	87	2,333	2.5
이란	249	28	235	73	3	588	0.6
우즈베키스탄	-	878	1,046	1,279	360	3,563	3.8
태국	-	356	826	1,009	277	2,468	2.7
몽고	-	-	-	-	217	217	0.2
카자흐스탄	-	-	337	236	229	802	0.9
총계	18,819	21,082	25,917	20,092	7,964	93,874	100.0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연수협력단 내부자료, 1998. 10(101)

이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의 경우 섬유 업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업종,

101) 손혜숙,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집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1999), 33.

조립금속 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업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업종 등 전형적 저임금 업종의 중소기업에 배치되었다. 이들 연수생들의 임금은 남자가 월 79만원, 여자가 월 76만원 수준으로 받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 남자 근로자의 70퍼센트, 여자 근로자의 67퍼센트 정도이고 심지어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보다도 못한 저임금 수준이다¹⁰²⁾

이들 산업기술연수생들은 실제로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정부당국에서는 이들을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생'이라는 명목을 붙여 '근로자'로 대우하지 않고 노동법도 부분적 적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어서 사실상 산업기술연수제도는 파탄상태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 결과 연수생들의 사업장 이탈이 대거 발생되고 있다. 즉, 불법 체류자 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금수준을 목도한 산업기술연수생들이 합법적 체류자격을 내팽개치고 불법 체류자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탈출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5월말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까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서 31,987명이 연수지정 사업장을 탈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탈출 근로자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탈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 이탈자의 44.4퍼센트인 4,1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 1,346명, 베트남 1,137명, 미얀마 660명, 방글라데시 524명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연수생의 무단이탈 적발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 합법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의 경우보다 인권침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불법 체류자의 경우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연수생의 경우 문제점은 주로 현행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에는 만든 '산업기술연수 관련 사후관리 방안'에 의하면, 연수자의 여권을 연수업체에서 보관토록 한다든지, 연수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한다든지,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사업장에서 이탈할 경우 인력송출 업체에는 송출권을 박탈하고 해당송출국가도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102) 조선일보, 2001년 5월 30일, 13.

발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제도적 강제수단 때문에, 엄청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력송출업체, 국내인력업체 및 연수업체들은 합작하여, 한편으로는 얼마간의 돈을 사업주에게 예치시켜 탈출을 방지시키는 방법으로, 또는 여권을 압수해 놓는 방법으로, 심지어는 감시, 감금 및 폭행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구조적 악'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현지 인력모집 및 송출업체의 횡포인데, 현지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인력을 모으는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중앙회의 계약 기준은 월 급여 210-260달러(숙식제공)인데도, 현지에서는 월 급여 450-500달러인 것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인력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광고를 보고 부푼 꿈을 안은 채 거액(1,300-3,000달러)의 비용을 송출회사에 주고 한국에 취업하러 왔는데, 막상 지급 받는 임금은 210-260달러에 불과한 것을 알고는 엄청난 실망을 한다고 한다. 이 임금에서조차 한국 내 인력회사에서 매월 11-60달러씩을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중간 착취하고 있다. 또한 그나마 인력회사가 임금을 지급 받아 그중 20퍼센트는 보증금 명목으로 인력회사에서 보관하기도 한다.

한국 내 인력관리회사에 의한 감시, 감금 및 인권침해 상황도 심각한 실정이다. 불법 체류자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작업시키면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한국 내 인력관리회사에서 철저한 감시체계를 가동시키고 있고, 연수업체에서도 외출을 금지시키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이에 항의라도 하면 무차별 폭행과 감금을 일삼고 있는데, 이를 본 상담 단체 등에서는 '현대판 노예노동'이라고 규정할 정도이다.

한국 내 민간지원단체에 의한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실태 폭로와 95년 1월의 네팔인 연수생에 의한 명동성당 농성 투쟁의 결과 국내외 여론이 비등하자, 한국정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연수제도 개선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연수제도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실태는 일정부분 개선되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위 개선대책이 연수생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또한 당사자인 외국인 취업 연수생들도 개선대책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주들이나 정부의 통상산업부 등에서 아침과 저녁 식사비용을 연수생에게 부담시키는 등 위 개선책을 사실상 무효화시

키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리고 위 개선책이 모두 실행된다손 치더라도 일종의 응급처방에 불과한 것이어서 문제의 근본적, 제도적 해결이 속행되지 않는 한 계속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 이른바 '산업기술연수생'들을 현실에 맞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한국노동법의 전면적용 등 공명정대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실행하는 것만이 근본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대개 처음부터 한국에서 취업할 준비를 하고 15일이나 3개월간의 체류만 허가되는 관광비자나 3개월간의 체류가 허가되는 친척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한국업체에 취업한 뒤 비자 만료기간이 지나서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대폭 늘어나면서 연수기간 중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하여 보다 조건이 좋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불법체류 상태로 된 경우와 연수기간이 종료된 뒤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상태로 남아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숫자는 1999년을 정점으로 하여 현재 약 3만 명 내외로 고정되어 있다. 몇 가지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이들(불법 체류자)의 평균 연령은 28-32세 정도이고 남녀간 비율은 남자 61-74퍼센트, 여자 26-39퍼센트이며, 학력수준은 85퍼센트 이상이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한편 이들을 채용한 사업장의 규모는 평균 3.8-9.3명의 영세 중소기업이었고, 1업체 당 평균 3.8-8.3명 정도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업종은 섬유, 봉제, 피혁, 플라스틱 사출성형, 전자조립 등 전형적 저임금 업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작업보조자 또는 단순기능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 노동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들은 임금은 제 185회 국회국정감사 통상산업위원회 '통상산업위원 요구자료 1'에 의하면 95년도에는 최저 수준이 30만원 정도였다가 최근에는 76-79만원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중국교포 제외).

〈표 3〉 민족 및 체류자격별 기본적 특성

구분	중국교포 불법	기타외국 불법	기술연수 불법	산업전체 불법
남자 비율(퍼센트)	59.6	86.9	58.8	74.8
평균 연령(세)	43.4	29.8	27.0	
기혼자 비율(퍼센트)	80.8	41.6	28.8	49.9
교육년수(년)	10.6	10.6	11.6	
식구수(명)	4.5	7.2	6.6	6.4
평균 입국비용(US\$)	1,147.4	2,005.5	1,591.2	1,835.2
조사대상자수(N)	104	221	68	393

노동정책연구소: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실태조사연구, 1995. 4. 4.

〈표 4〉 연도별 임금 추이

연도	1997	1998	1999	2000
월 임금	평균 68만원	평균 60만원	평균 70만원	평균 77만원

이들의 임금수준은 제조업 한국인 근로자 전체 평균임금의 약 55-60퍼센트 수준이나 동종, 동규모 사업장의 한국인 근로자 임금의 약 60-70퍼센트 수준이다. 그런데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몇몇 조사에 의하면 평균 체불일수는 약 50.8일이고 평균체불액수는 약 50만-80만원 정도이다. 초기에는 상담건수의 약 9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중 40-60퍼센트 정도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외국인 근로자 선교 현황

외국인 근로자 선교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근로자 선교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가. 외국인 근로자 선교 사역의 역사(103)

외국인 근로자 선교 사역은 1992년부터 사실상 시작되었다. 주로 공단 지역에 위치한 개 교회나 선교 단체 중심으로 작은 형태의 모임이 서서히 결성되면서부터이다. 1992년 7월 희년 선교회(대표: 이문식 목사)에서는 구로 공단의 필리핀인 중심으로 영어 예배를 시작하였다. 이들의 사역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당면 과제인 의료, 노동, 인권 문제를 상담하였고 지속적인 접촉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1992년 7월 1일 감리교 지인석 목사는 경기도 광주 지역에 재한 외국인 선교교회를 설립하여 최초로 다국적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곳의 사역도 의료와 인권 상담을 병행하였다.¹⁰⁴⁾

1992년 11월 구로동 소재 갈릴리 교회(담임: 인명진 목사)가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시작하여 현재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에서 온 약 200여명이 모이고 있다. 사역은 크게 목회, 전도, 인권 보호 활동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종암동 소재의 은혜복음선교회(대표: 교수영 전도사)가 필리핀 사람만을 위한 예배를 시작하여 철저한 복음 전도와 제자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교포 사역은 91년 2월초부터 중국교포선교협의회가 서울역 전도팀을 구성하여 있었으며 주로 대중집회, 양육집회 형식으로 12차례에 걸쳐 시도하였고 또한 신림동에 사랑의 집을 운영, 공동 생활을 하며 신앙훈련을 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한 연합 모임은 93년 3월 5일 남서울 교회에 모였으며 한국교회 근로자 선교회(NCC: 1992년 11월 27일 발족) 주최로 '외국인 근로자 선교정책 협의회' 모임을 하게 되었다. 1994년 2월 17일 '한국교회 외국인 근로자 선교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의장에 인명진(갈릴리 교회)과 이만열(희년 선교회)이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4년 12월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 선교 협의회'를 창립하였다. 1995년 12월 서울 9개 교회, 경기 13개 교회, 대구 경북 6개 교회, 부산 경남 4개 교회, 대전 3개 교회 등 총 35개 교회가 연합하여 '예장 외국인 근로자 선교 협의회'가 갈릴리 교회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결의하였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선교 및 봉사를 위한 예장 전국 네트워크 형성과 예배, 설교, 성경공부 등의

103) 권병학,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세계 선교대학원, 1997), 28-30.

104) 이만열, "한국교회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선교적 과제", 교회와 신앙, 1996년 1월호, 70-71.

자료, 정보의 수집 및 교환. 둘째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센터 설립지원 및 실무자 교육, 훈련, 세미나 실시. 셋째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한 정책 및 사업 방안 마련. 넷째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 홍보 및 출판 활동, 자료집 발간.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 선교하는 미자립 교회 지원. 여섯째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한 국내, 국제 연대 및 공동 대처. 일곱째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 정립을 위한 연구 등이다.

나. 외국인 근로자 선교단체의 유형

현재 한국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선교하는 교회나 기관은 대략 40여 개로 추산된다.¹⁰⁵⁾ 이들 기관은 설립 당시의 정신과 사역자들의 철학에 따라서 각각 나름대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유형은 대략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1) A형

A형은 기존 지역 교회와 직접 관계된 사역 형태로 교회내 선교부서로 외국인 근로자 선교부를 운영하는 형태와 교회에 소속한 독립된 부설(out-reach body)기구로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이렇게 분류하는 근거로는 공간과 재정의 독립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회내 선교부서로 운영하는 방법은 한국교회들이 교회공간과 선교부 재정으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에 교회에 소속된 독립 기관의 방법으로 사역하는 경우에는 장소와 재정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유익한 부분도 있다. 아래 <표 5>에서는 이 사역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회에 소속된 독립 기관으로 사역하는 것을 외국인이 선호하며 모슬렘이나 힌두권 사역에 보다 깊이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점이 작고 장점이 유용하다. 그러나 지원해 주는 교회가 사역 공간과 사역을 위한 재정의 필요를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유용성이 확보된다고 본다.

(2) B형

105) Ibid., 15.

B형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독립 교회로서의 활동인데 대표적인 교회로는 재한 외국인 교회(담임: 지인식 목사, 감리교, 1992)와 서울 외국인 교회(장로교, 1994)와 안산 중국인 교회(1994) 등이 있다. 위 교회의 경우 리더는 한국인 목사나 전도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우는 한인교회도 아니고 현지인 교회도 아닌 양자가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도이기도 하다. 이 교회들의 특징은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한국인 리더가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방식에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반면에 복합적인 문제를 자아낼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볼 때, 영적인 관리는 한국인 리더가 하고 외적인 일들은 외국인 리더가 하는 것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점차 위 3단체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 B형은 과도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음으로 기대해 볼 형태라고 본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으로 구성된 교회 멤버들을 정부정책의 유동적인 상황과 강제 출국 정책 속에서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현 위 3단체는 개척교회 형태임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외국인 교회로서의 장기적인 유지 가능성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¹⁰⁶⁾

<표 5> 교회의 참여 유형의 장단점 비교

	교회의 부속 선교기관	교회의 독립된 부설 기구 (OUTREACH BODY)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자원 봉사자 확보가 용이하다) * 교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 예산에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 민족별로 독특한 상황이 발생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다. * 민족별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다. * 모슬렘, 힌두권 외국인에게 반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적 예배 형식에 의존시키게 된다. * 개 교회 중심적일 수 있다. *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상담이나, 실제적인 문제 등) * 모슬렘, 힌두권 외국인에게 처음부터 종교적 반감을 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확보가 어렵다. *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 모임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06) 강명규,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교 신학적인 고찰" (서울: 외국인노동자선교자료실, 1996), 25-26.

(3) C형

C형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권, 의료, 법률 상담 등을 위해 외국인 쉼터 혹은 피난처를 운영하는 형태로 직접적인 전도나 양육, 예배 등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외국인 피난처(대표: 김재오 전도사, 1993)나 성남 외국인의 집(대표: 김해성 목사, 1994)이다. 이들이 직접적인 선교 사역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종교적인 편파성을 심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 특히 성남 외국인의 집은 에큐메니칼에서 주장하는 인간화의 문제나 사회구조적인 죄의 문제를 개인적 내적 구원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구원관에 있어서도 내적인 영적 회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의식화라는 말을 사용하며, 구원도 사회 구조적인 악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타종교인 불교나 천주교 기타 시민 운동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995)나 '외국인 근로자 대책 협의회'(1995)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인권 보호 활동 자체를 선교로 보고 있다.¹⁰⁷⁾

(4) D형

D형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문적인 선교단체로 희년 선교회(공동대표: 홍정길, 이만열, 1992)와 은혜복음선교회(대표: 고수영 전도사, 1993)가 있다. 이 단체의 운영은 여러 협력교회들이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단체의 성격은 인권, 의료, 법률상담 등을 위한 활동을 무시하지 않고 참여하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개인구원의 문제에 집중을 한다. 희년 선교회는 세계 복음주의 선교협의회(WEF)의 로잔 언약에 근거한 대도시 선교 전략에 기초한 총체적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참여와 개인 전도의 균형 속에서 사역 하고자 한다. 때문에 사회복지적인 접근(의료, 법률상담, 한국어교실)과 민족별 소그룹 성경공부(베트남, 필리핀, 중국, 미얀마 등)를 병행한다. 민족별 성경공부는 현지어를 아는 한국인 선교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 유형의 또 다른 형태는 은혜복음 선교회의 사역인데, 이들은 순복음 신학을 기반으로, 필리핀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각 지역별로 모이고 있으며, 예배 중심적이고 찬양과

107) Ibid., 26-27.

기도가 뜨겁다. 그동안 매년 2차례 모이는 연합 집회 시에는 500여명 이상이 참여하였다.¹⁰⁸⁾ 아래는 이상 4가지 방법의 선교 유형을 정리한 표이다.

〈표 6〉 외국인 근로자 선교단체 유형 분류

유형	내용	대표적인 단체	교단	활동유형
A형	교회 내 선교 부서	갈릴리 교회 1993 새중앙 교회 1993	장로교 (통합)	인권 상담과 의료 활동, 예배중심(다민족)
	교회 소속 독립부서	온누리 미션 1993	장로교 (통합)	예배 중심(미얀마인 중심)
B형	외국인 근로자 자체 교회로서의 활동	성남 재한 외국인 교회 1992	감리교	예배, 상담, 쉼터 운영(다민족)
		서울 외국인 교회 1994	장로교 (개혁)	예배, 쉼터 운영(다민족)
C형	복지 상담소 운영 및 활동	외국인의 집(상담소) 1994 외국인 피난처 1993	장로교 (기장) 초교파	상담 중심, 노동, 인권, 의료 등 쉼터(다민족)
D형	전문 선교 단체로서의 운영	1) 희년 선교회 1992.	초교파	총체적: 소그룹 양육, 인권, 의료, 상담, 예배, 쉼터(다민족)
		2) 은혜복음선교회 (EMFK) 1993.	초교파	BRANCH 방식: 예배, 양육(필리핀인 중심)

5.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역 현황

한국 교회의 외국인 근로자 선교 현황을 위해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시작한 성생원 교회와 외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한 외국인 선교 교회와 희년 선교회,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선교 위원회'를 조직하여 외국인 선교를 하는 갈릴리 교회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성생원 교회

성생원 교회는 성공회 소속으로 경기도 남양주에 있다. 이 지역에서는 1991년부터 주로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인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약 2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성생원 교회는 1991년부터 이들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고 우선 대부분 카톨릭 신자들인 이들에게 매월 영어미사와 잔치, 매주

108) 강명규,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교 신학적인 고찰", 27.

한국인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공동 식사를 통해 서로 친교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리고 개별 면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상황을 접수 해결해 주고 체불임금 관계, 직업알선, 송금관계 협조 등을 통하여 이들의 체류를 직·간접으로 지원해 왔다. 현재 까지 예배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93년 2월부터 개인 신상관리와 면담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들의 문제에 더욱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¹⁰⁹⁾

나. 재한 외국인 선교교회

서울 근교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선교교회는 감리교 소속으로 원래 한국인의 교회였으나 1992년 6월에 재한 외국인 근로자들만의 교회로 전환되었다. 가구 공장에 고용되어 있던 필리핀인들을 상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과 선교의 필요성에서 재한 외국인 선교교회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8개국(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가나)에서 온 158명이 등록하여 매 주일 평균 80여명이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공용언어는 영어). 재한 외국인 선교교회는 의료 봉사, 동절기 의복 제공, 서울시내 관광,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 선교요원 언어훈련, 무료 미용실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복음사역 역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¹¹⁰⁾

다. 희년 선교회

원래는 희년교회였으나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해 선교교회로 전환하였다. 구로공단지역에 있는 희년 선교회는 '구로 지역 필리핀 크리스천 모임(Guro Christian Filipino Fellowship)'을 형성하여 매주 정기적인 예배와 의료 선교, 그리고 인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희년 선교회는 현재 '한나 선교회' 소속의 봉(Bong) 선교사와 길버트 목사(필리핀인)가 따갈로그어 기도회(매주 토요일 오후)와 주일 오전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주일 오후에는 3명의 한국인 간사가 한국의 문화, 성경공부와 한국 법률 예비교육을 실시한다.¹¹¹⁾

109) 이명석, "도시선교 관점에서 본 외국인 근로자 선교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7), 77.

110) Ibid., 78.

111) 이명석, "도시선교 관점에서 본 외국인 근로자 선교정책 연구", 79.

라. 갈릴리 교회

갈릴리 교회는 장로교 소속으로 서울의 구로 공단에 위치해 있다. 주로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의료 활동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로서 전교인이 두 배나 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는 바람직한 형태의 교회이다. 인명진 목사와 외국인 근로자 전임 사역자를 중심으로 경상비의 50퍼센트를 사회 선교에 활용하는 교회로서 소망교회가 구로 공단의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구로 6동의 '희망의 집'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교회중심으로 하는 교회이다. 이 교회의 외국인 근로자 선교 원리는 값싼 미끼식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경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기초를 행하는 선교이다. 즉 외국인 근로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베풀 수 있는 선한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단시간의 열매로 얻으려고 이제 겨우 짝 난 이삭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뿌리가 뽑히게 하는 오류를 피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선교 즉 자생력과 자전적 기능을 배양하는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갈릴리 교회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갈릴리교회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요 활동은 교회 활동과 의료 사역으로 구별을 지을 수 있는데 교회활동으로서는 예배, 전도, 상담,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¹¹²⁾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피난처(신도림 상담소), 총현교회, 새문안 교회, EMFK, GEMF, 사랑의 교회, 중국어문 선교회, 서울 외국인교회, 온누리 미션, 아가페 외국인 교회(이상 서울지역), 인천 중화기독교교회, 인천 국제기독교교회, 인천 성광교회, 부평 동부교회, 갈월 감리교회, 부개동교회, 동암교회, 인천 남동 외국인교회, 인천 제일감리교회(이상 인천지역), 안산 외국인 노동상담소, 양우리 교회, 새중앙 교회, 성남 외국인 근로자의 집, 암미 선교회(이상 경기지역), 대전 빈들교회, 대전 순복음교회 등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회들은 그들의 사업주체와 형식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선교사역은 크게 예배, 성경공부, 전도, 교육과 같은 종교적인 서비스와 쉼터 제공, 의료서비스, 상담 등과 같은 사회복지 서

112) Ibid., 80-86.

비스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한국교회를 위한 원리들을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신학적인 이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사회학적인 논의 이전에 성경에서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1. 구약적 이해

성경의 내용을 크게 나누다면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으며,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웃에 대한 책임과 사랑의 명령 및 확인이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창 1:26-27).¹¹³⁾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창조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곤경 가운데 처한 이웃들에게 대한 사랑의 의무이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들이다. 출애굽기에는 나그네를 돌보라는 명령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출 22:21)고 말씀하고 있다.¹¹⁴⁾

113) H. Henry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 58.

114) Walter C. Kaiser Jr, 구약성경윤리, 홍용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127.

가. 구약 원전에 나타난 외국인

성경은 나그네를 잘 접대하라고 가르친다. 레위기 19장 33-34절에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였고, 사랑으로 접대하라고 하였다. 손님을 잘 접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이다.¹¹⁵⁾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객”과 함께 연결되어 열거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신 10:18; 16:11; 24:17, 19, 20, 21; 26:12-13; 27:19). 나그네 즉 외국인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게르’(גר)가 대표적으로 쓰인다. 이는 자기 혈족과 종족을 떠나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의 보호에 의존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혈연 관계로 자기 몫의 땅도, 법적 권리도 없는 사람이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가 아내 십보라를 통해 첫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실존적 단어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토착브(תושב), 노크리(גר) 등의 말들이 ‘게르’와 별도로 사용되면서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미망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게르’라는 단어는 92번 나오는데 율법서인 ‘토라’에 많이 나타나며 예언서인 ‘느비임’에도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대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부여된다.

나. 나그네로서의 외국인 근로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우상이 들끓던 우상 집에서 끄집어내어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신다. 더욱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라는 말씀에서 드러난다. 그후에 아브라함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창 23:4)라는 나그네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야곱의 시대에는 각국에 기근이 심하였으나 애굽 땅에는 식물이 있었고(창 41:54) 각국 백성들도 식물을 사려고 요셉에게 이르게 된다(창 41:57). 이때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낸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 저 애굽이 곡식이 있다

115) 전호진, 아시아 기독교와 선교전략, 105.

해서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창 42:2). 야곱의 식구들의 이주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의 초대였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창 45:18). 이것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이었고 오늘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혹하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과 같다. 애굽의 건축물들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온 노예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들은 기업의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다. 애굽의 문서들은 그러한 히브리인들의 대부분이 건축 공사에 동원되었다고 전한다. 이처럼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다수도 결국 압제, 착취, 배신의 대상이 된다. 처음으로 체결했던 계약은 파기되고 다른 계약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구약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처럼 외국인들은 많은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특히 20만 여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강제 노동, 인권 침해, 임금 체불 등 이제 단순한 차원을 넘어,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비난과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¹¹⁶⁾ 그러나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홀’(마 5:8)의 결핍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공홀은 ‘불쌍히 여김’과 ‘사랑의 행위’의 합성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사랑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기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기독교는 성경적인 정신을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을 지고 사랑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

다. 품꾼으로서의 외국인 근로자

품꾼이란 오늘날의 근로자의 의미로 계약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 품꾼에 대해 레위기 25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25절 곧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신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심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품꾼은 그 당시 존재하던 ‘종’(노예)의 개념과는 다른 계약적 자유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116) 이만식,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418.

낸 하나님의 품꾼이므로 종으로 팔릴 수는 없다(레 25:42).

선지자들은 일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 비난했으며 특히 품삯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였다(렘 22:13; 사 58:3). 품삯은 일꾼이 고용되어 노동을 한 대가로 받는 삯을 말한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품삯 지불에 있어서 고용된 일꾼의 품삯은 충분히 그리고 즉시 지불되도록 되어 있다(레 19:13, 신 24:14).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는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신 24:14-15)라고 했다.

김정준은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 법은 고대 이스라엘의 노동정책을 말해 주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¹⁷⁾고 했다. 그는 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노동 정책을 말해주는 오늘날의 근로기준법과 같은 이유를 다음과 같은 본문 해석을 통해 피력한다. 첫째, 이스라엘 사회에 노동을 파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라는 것, 둘째, 그러한 근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이방 사람도 있다는 것, 셋째, 이런 근로자가 받아야 할 품삯은 해가 진 다음까지 미루지 말고 당일에는 계산하라는 것, 넷째, 이러한 근로자들은 그날 벌어서 하루 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품삯을 받는 일을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섯째, 만일 그렇게 마땅히 주어야 할 날에 삯을 주지 않고 미루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품꾼으로서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인식과 다른 하나는 그들 자신을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품꾼으로서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반영하는 척도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라. 이스라엘의 외국인 근로자(게르) 대우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은 ‘게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아브라함 자

117) 김정준, “구약성경에 나타난 빈자의 연구”, 신학연구, 1973년 11월호, 243-244.

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신을 '게르'라고 자칭하며 그의 후손도 '게르'가 된 것임을 알고 있다. '게르'는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아무도 불편 없이 살 수 있었다. '게르'는 레위인, 고아, 과부와 같이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받아 살 수 있었다. "제 삼년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와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신 26:12). 또한 '게르'도 제사장의 지휘에 따라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설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수 8:33).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처럼 '게르'를 사랑해야 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겨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매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 19:33-34).

민수기에 나타난 '게르'는 부지중에 살인죄를 지었을 때 도피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민 35:15). 에스겔은 놀랍게도 '게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겔 14:7). 이스라엘은 결코 '게르'를 압박해서는 안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출 22:20; 레 19:33; 신 24:7-27; 렘 7:6; 22:3; 슥 7:10; 시 146:9). 사실 '게르'였던 유다 지파의 대표자 갈렙을 보면 '게르'는 출애굽의 주역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고, '게르'였던 사울을 죽인 아말렉 소년이나(삼하 1:13) 다윗의 충신 우리야를 생각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왕의 권력을 유지하게 했던 세력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우는 하나님의 법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 당시 이스라엘이 사람이 보여주었던 외국인과 타국인에 대한 대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우라고 할진대 오늘날 교회도 이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대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마. 나그네와 고아, 과부와 의 관계성

구약 시대의 이들에 대한 관심은 구약의 율법 규정에 나타난다. 그들의 요구는 성취되고 권리가 장려되어야 한다고 요청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형성된 민족이다. 그런데 이 계약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질서로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율법을 언급하고 있다. 이 율법은 쉽게 착취의 희생이 되는 과부와 고아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처럼 모세 오경에 국가 전체가 법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고 고아, 과부, 빈자, 노예 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¹¹⁸⁾ 이러한 생각은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선지자는 사회 복지자도 사회 개혁자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으로 곧장 옮겼으며 이에 따라 소외받은 인간 중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¹¹⁹⁾ 이사야(3:14-15), 예레미야(23:3), 에스겔(14:7), 아모스(2:6-12, 4:1, 5:11, 8:4), 스가랴(7:10) 선지자들은 나그네, 고아, 과부를 같이 취급하여 소외 계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했다.

이상과 같이 구약 시대는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서로 같은 부류에 놓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특징은 병든 자, 가난한 자, 노령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신약적 이해

가. 신약 원전의 외국인 의미

신약 원전은 '외국인'으로 '에트노스'(ethnos) 혹은 '헬렌'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헬렌'이란 단어는 헬라인을 의미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이방인의 의미도 가진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외국인'을 의미할 때는 대부분 '에트노스'를 사용한다.¹²⁰⁾ 한편,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에트노스'의 용례는 구약성경의 외국인인 '게르'보다 단순한 것 같다. '에트노스'는 선교 대상이며 은혜를 받을 자들이며 아울러 불신앙을 떨쳐 버려

118) Howard Hendriksen, 성경과 사회정의, 편집부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4), 25.

119) 김덕준, 기독교와 사회복지, (서울: 미광문화사, 1985), 34-35

120) 영어에서는 'ethnic'은 주로 언어나 습관상으로 즉 문화적, 종교적 의미에서, 피부색이나 육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인종적인 의미에서는 주로 'racial' 사용한다. 특히 미전도종족선교 쪽에서는 '민중'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야 할 이교도적 마음이다. 이 용례는 마태복음에서 '에트니코스', 갈라디아서에서 '에트니코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정착하여 부강을 자랑하면서 외국인을 본 것이 아니라 '유리하는 아람 사람'처럼 이들을 외국인으로 본 것이다. 여하튼 신약 성경에서도 외국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나. 복음서에 나타난 외국인에 대한 관심

신약 신학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음서 신학이 제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방인에 대한 견해이다. 요한서신이나 바울서신, 그리고 공동 서신에서 이방인 문제는 별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외국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문구가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구성을 통한 마태의 저술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신 것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적어 놓는다. 물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백성들 가운데는 이방인이 포함된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많이 찾아가셨으며 이방인들을 직접 상대했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들의 병약한 문제나 귀신들린 문제 등을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4절 이하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만난 간질환자의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일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라는 암시를 주셨다.

다. 현대적 적용

나그네는 혈족과 종족을 떠나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의 보호에 의존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혈연 관계도 자기 몫의 땅도 법적 권리도 없는 사람이다. 신약 시대는 시대적 정황이 구약 시대나 중세시대나 현대시대와 다르다. 신약시대의 시대적 정황

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도 외국으로 나가야 했다. 이 시대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 한국 상황은 구약의 다윗 시대와 흡사하다. 다윗 시대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다윗 왕국의 경제력을 증강시켜 주었다. 신명기 학파는 토라의 외국인들에 대한 율법적 배려는 다윗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오늘날 한국인 공동체 속에 있는 나그네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러들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외국인은 한국인 특유의 배타성 때문에 고향을 지르고 있다.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는 그 고통이 더욱 크다. 이들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 조건, 동등한 노동기본권, 동등한 사회보장권이 보장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일 것이다.

제 3 절 선교적 이해

1. 타종교에 대한 이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종교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접근할 때 이들 각자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한다. 이들의 종교의 세계관, 교리, 인간론, 구원론 등을 이해해야 하며 그 후에 각각에 적절한 선교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타종교에 대한 태도를 규정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올바른 방향 감각과 확신을 얻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헨드릭 크래머(Hendrik Kraemer)는 말한다.¹²¹⁾

타종교인을 전도할 때 바빙크는 변증과 공격을 ‘엘렙틱스’(elenctics)로 표현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 동사 ‘엘렙고’에서 파생된 것으로 원래의 의미는 ‘논박하다,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뜻이다.¹²²⁾ ‘엘렙틱스’는 개혁주의 선교신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엘렙틱스’는 비기독교 종교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신자가 타종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접촉점에 의해서 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호진은 말한다. 그는 말하기를, “신의식과 하나님의 형상은 접촉점이 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신의식이 접촉

121) Hendrik Kraemer, 기독교선교와 타종교, 최정만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23.

122) J. H. Bavinck,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227-228.

점"123)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전도의 좋은 접촉점이 되는데, 바빙크도 말하기를, "선교사들이 원주민과 접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었고 그리고 타종교인에게 전도할 때 타종교의 개념과 언어를 접촉점으로 하여 접근해야 한다"124)고 본다. 즉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과 언어로 시작해야 접근이 용이하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의 공통 관심사가 접촉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선교사 자신이 가장 좋은 접촉점이 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성령을 의존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125)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의 절대성을 확신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크래머는 종교를 분류하기를 선지자적 계시종교, 초경험적인 성취 위주의 자연종교로 분류하고 있다.126) 이런 분류를 통해 타종교의 사상체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기초로 전도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확장은 물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샤머니즘, 힌두교, 불교, 유교, 회교 등과 같은 종교에 대한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평가와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2. 문화와 언어 전달에 대한 이해

선교는 엄밀히 말하면 타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에 있어서 선교 대상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복음전파란 있을 수 없다. 복음주의의 문화관은 한마디로 긍정적이다. 로잔대회와 신학과 교육위원회는, 지금까지의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었다고 반성하고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문화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개혁주의 신학은 창세기 1장 28절에 중점을 두어 세상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입장의 문화관인데 비해 복음주의는 특정인간의 생활, 습관, 언어, 제도들로 하나의 단위체계로 문화는 형성된다고 본다.127)

교회와 문화와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교회와 신자는 세상에서 무조건 분리하여야 한다는 사상(separational model). 둘째, 교회는 세상과 담

123) 전호진, 선교학, 200.

124) J. H. Bavinck, 선교학 개론, 181.

125) 전호진, 선교학, 181.

126) Hendrik Kraemer, 기독교 선교와 타종교, 161.

127) 전호진, 종교다원주의와 타종교 선교전략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3), 105.

을 무조건 제거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태도(identification model). 셋째, 문화 속에 많은 악이 있지만 적극적 자세로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상(transformational model)이다.

우리는 그들의 문화유산을 바로 평가하고 이해함으로 복음을 잘 적용시켜야 한다.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화의 동등성이라는 입장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들을 이해함으로 복음이라는 초자연적인 문화가 자연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변혁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들의 문화를 이해한 후에는 기독교 말씀의 종교로써, 전달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선교는 타문화권 내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활동으로, 곧 커뮤니케이션이다.¹²⁸⁾ 따라서 선교는 문화와 문화와의 만남이고 타 문화권과의 커뮤니케이션이며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동일 문화권에서도 전달자와 피전달자 사이의 전달효과가 8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한다.¹²⁹⁾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타문화권 내의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또한 수많은 전달매체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한 문화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용태도가 타문화권에서는 부적당한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붕괴된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을 위하여 자신이 먼저 인간의 모양을 입고(성육신) 인간에게 찾아 오셨다.

크래머는 “성경은 하나님을 당신과 인간 사이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실한 관계를 창안하시고 확립한 분으로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관계가 단절된 후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는 일을 주도하시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다”¹³⁰⁾ 고 말한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는 역사, 즉 하나님의 끊임없는 활동으로서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에서 취해야 할 커뮤니케이

128) Stephen A. Grunlan & Marvin K. Mayers, Cultural Anthropology: A Christian Perspectiv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32.

129) 전호진, 종교다원주의와 타종교 선교전략, 199.

130) Hendrik Kraemer, 그리스도교 신앙의 커뮤니케이션, 임춘갑역 (서울: 종로서적, 1981), 19.

선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문화적 상황 속에 직접 들어 와서(성육신) 커뮤니케이션 한 것처럼, 선교에 있어서 문화와 상황에 대한 이해는 우선해야 될 것이며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선교라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선교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화적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¹³¹⁾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그 세계 안에 서야 하고, 즉 타자의 세계의 일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인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서, 제 아무리 동정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결국은 타자의 세계에 대항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¹³²⁾

이와 같이 선교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 문화적인 요소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문화적인 몰이해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는 회교권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접대하는 경우이든지 혹은 왼손을 안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게 왼손으로 악수를 청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문화 때문에 고려해야 될 요소는 첫째가 복음을 전하고 받는 사람들의 인식론적인 태도이다.¹³³⁾ 실제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것은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봐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식에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문화권에서의 사회조직이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¹³⁴⁾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신 국가에 따라서 계급제도가 아직도 존재하는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신분 계급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사고방식의 차이 역시 문화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로는, 언어는 문화의 유사성을 참조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다섯째로, 공간 이용으로서 공간을 이용하고 조직하는 것도 문화 변화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131) 강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선교", 기독교 사상, 1983년 7월호, 29.

132) Hendrik Kraemer, 기독교 선교와 타종교, 72.

133) Paul G. Hiebert,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김영동, 안영권 역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7), 79.

134) Ibid., 120.

3. 각 종교권별 이해

가. 필리핀인(카톨릭) 사역

필리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인데,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카톨릭이 강한 나라이다. 그런데 카톨릭은 중앙집권적 체계이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역을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필리핀 근로자들이 천여 명 이상 모이는 성당이 지역별로 있으며, 전문 상담 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필리핀 대사관과도 긴밀하게 협력 사역을 하고 있다. 카톨릭은 중앙 기구와 각 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전문가와 전임 사역자들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이 효율적이다.¹³⁵⁾ 개신교 쪽에서는 개교회 성향이 강해 카톨릭과 같이 대규모 모임은 없으며 산발적으로 필리핀인들을 위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¹³⁶⁾ 대부분의 필리핀인들이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어서 교회로 불러모으기가 쉽고 자기들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기 쉬우며 이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개교회에서 쉽게 사역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 교회는 주로 교제¹³⁷⁾와 예배 그리고 의료 봉사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대부분 카톨릭 교인이거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필리핀인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중국 교포(사회주의/ 유교권)를 위한 사역

주로 전통적으로는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현재 사회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에 하에 놓여 있는 중국 교포들을 위한 사역은 중국 교포선교 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중국 어문선교회, 희년선교회, 아가페 외국인 교회, 중국 선교 연구회, 엘림 해외 봉사회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역은 중국 선교에 관련된 단체들이 협력하여 이루어 가고 있는데 매주 전도 집회와 전도 정기 수련회와 공동생활의 집 운영과 제자운영 사역 등을 하고 있다. 이 사역은 교포라는 접촉점과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개교회 차원

135) 이만열, "한국교회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선교적 과제," 71.

136) EMFK, 서울외국인 교회, 갈릴리 교회, 희년선교회, 인천국제기독교회, 부평동부교회, 인천제일감리교회, 안산 외국인상담소 등에서 필리핀인 사역을 하고 있다.

137) 음식 제공, 영화 상영 등.

에서도 리더 급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기도 한다.¹³⁸⁾ 특히 현재의 중국선교는 본토 인들을 위한 선교는 미비한 가운데 주로 중국 내 소수민족들과 동북부에 자리한 약 200만에 달하는 조선족에 대한 선교하는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주류민족인 한족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장 가깝고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미지의 나라만은 아니다. 중국 선교 역사상 그래도 가장 먼저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는 예수회가 먼저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선교 열매를 얻었던 것을 교훈으로 삼고, 동족이며 언어가 잘 소통되고 대 북한선교의 한 교두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선족을 일차 선교대상으로 삼아 선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기에 한국 내 중국교포 근로자 선교는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선교지에서의 사역만을 선교로 인식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현 단계에서의 중국선교는 우선적으로 중국을 사랑하고 잘 이해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미래의 사역자들을 시급히 육성하는 것을 선교사역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그들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 회교권 사역

타종교 중 기독교 최대의 적이 이슬람교이듯이 이들에 대한 복음선교 또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다. 이슬람교도는 반드시 부부가 이슬람교도여야 하기에 강제성이 강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스스로의 결속력을 강하게 한다. 따라서 이슬람 선교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국에서라면 가족과 이웃 때문에 개종을 두려워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에 와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로 인해 복음에 마음이 열려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개개인의 인적 상황을 보호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자 양육을 통하여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¹³⁹⁾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이들은

138)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81), 72.

139) 희년 선교회 등에서는 이런 방법을 실제 활용하고 있다.

비록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열려지지만, 반대로 이들의 종교심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회교권 국가에서는 국가적으로 혹은 자체적으로 감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사역은 그들 개개인의 신앙을 보호하면서 혹시라도 귀국 후에 당할 어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역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선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면서 차후에 집단적인 개종으로 유도하는 식의 선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인도, 네팔인(힌두권) 사역

힌두권인 인도, 네팔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나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개념이 없다. 힌두교는 어떤 특정한 창시자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하나의 단일한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사한 여러 종교들이 모인 일종의 종교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5천년의 역사에 걸쳐 인도의 보통 종교적, 문화적 운동을 흡수, 동화시키면서 서서히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힌두교도 들은 범신론자이기도 하고 다신론 자들이기도 하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일신론자들이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¹⁴⁰⁾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인도인들은 영어, 힌디어 외에도 보통 다른 언어를 3-4개 구사¹⁴¹⁾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들에게 복음의 유일성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선교사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네팔인들은 철저하게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 힌두교 왕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무조건 힌두교 신자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특이한 것은 네팔은 가장(家長)의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이다.¹⁴²⁾ 따라서 이들에게는 종래의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난 외국 땅인 한국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여는 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140) 이현갑 편, 세계의 종교들 (서울: 도서출판 청파, 1993), 16.

141) 전호진, 아시아 기독교와 선교전략, 214.

142) Ibid., 291-292.

마. 불교권(태국, 스리랑카인) 사역

불교는 거의 아시아 대륙에만 한정되어 발전하였다. 오늘날 종교적으로는 만주에서 자바까지 횡적으로는 중앙아시아에서 일본 열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퍼져 있음으로써 극동의 주요 종교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¹⁴³⁾ 일반적으로 불교 국가는 타종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매우 느리다. 특히 이들은 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한국교인들이 이들에게 선교하기를 위해서 많은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취할 때도 많다.¹⁴⁴⁾ 그러므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스리랑카의 경우는 과거 기독교 국가들로부터 지배당한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식층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태국과 스리랑카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회와 연결되는 가운데서 신앙지도를 받고 있다.

143) Ibid., 41.

144)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이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이 되어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고마워해야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제 5 장

선교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양육

외국인 근로자를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교전략적 방법이다. 여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제자훈련 방식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제자훈련 방식은 지역 교회에서 많은 효과를 거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미 기존 교회에서 사용해 보았던 방법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준비된 사역자로 선교적 소명을 감당토록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제자훈련의 원리와 방법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목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교사로 양육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일반적 양육의 원리

1. 양육의 정의

게리 쿤(Gary W. Kuhne)은 양육이란 “초신자들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영적인 작업”¹⁴⁵⁾이라고 정의했으며, 웨에론 무어(Waylon B. Moore)는 “양육이란 변화, 성숙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배가시키는 일”¹⁴⁶⁾이라고 했다. 양육은 아기를 키우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가 저절로 자라지는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음식을 먹고 돌봐주어야 하고 훈련받아야 한다. 만약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집단 활동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양육의 기간이 없이 지낸다면 그는 비정상이라고 판단되어 질 수밖에 없다.¹⁴⁷⁾ 이 양육의 사역은 훈련(training)과 가르침(teaching)에 의해 이루어진다. 훈련과 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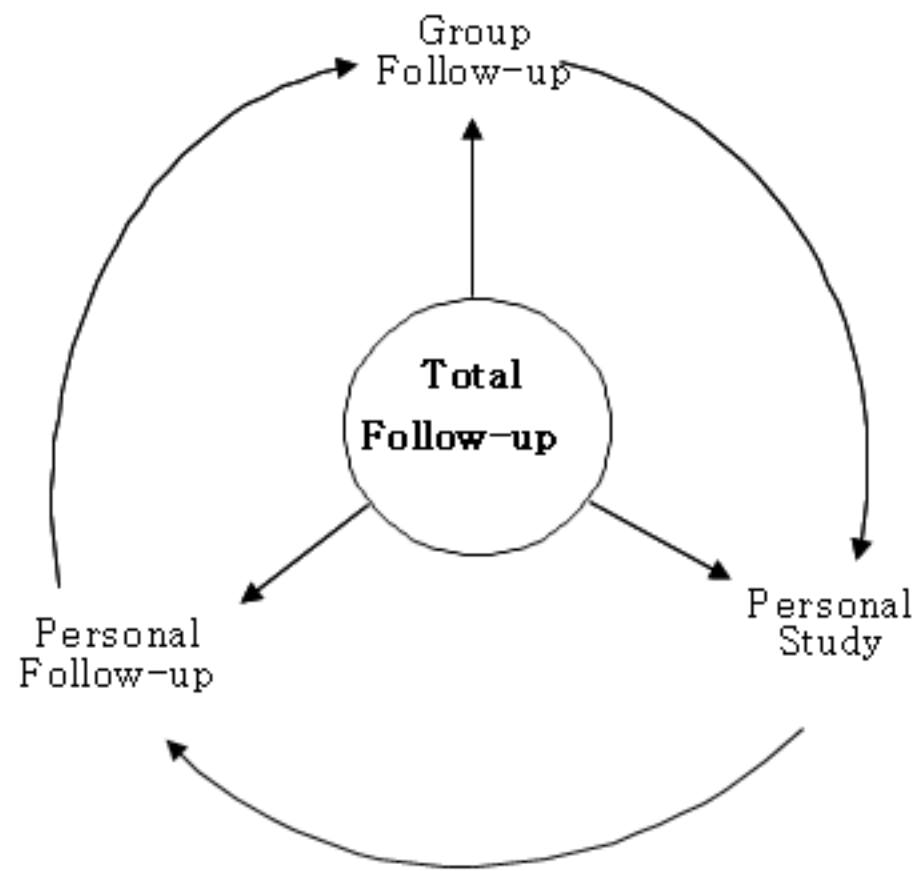
145) Billie Hanks Jr,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128.

146) Waylon B. Moore, New Testament Follow Up (Grand Rapids: Eerdmans, 1978), 17.

147) Ibid., 20.

침은 개인적인 면과 집단적인 면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데, 주로 가르침은 이념을 다루고, 훈련은 기술을 취급한다.148) 한 사람이 영적인 중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중생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때 그의 주변에서 그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자인 양육자의 역할은, 말씀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를 설득시켜 결단케 하고, 그를 육성하는 것이다.149)

<그림 1> 전체적인 양육프로그램의 요소



이러한 측면에서 양육은 하나의 행동(act)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process)이다.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과 영적 성숙의 지름길은 없다. 그러므로 양육은 영원한 것이다.150) 양육의 전 과정은 어린아이의 태어남과 같은 복음화 단계와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장성한 자로 세워주는 무장 단계의 세 단계를 포함한다.151)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은 양육의 원리를 잘 묘사해주는 구절

148) Billie Hanks Jr,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118.

149) James F. Engel & H. Wilbert Norton, What's Gone Wrong with Harvest? (Grand Rapids: Zondervan, 1977), 44-45.

150) Waylon B. Moore, New Testament Follow Up, 17.

151) Allen Hdidian, Successful Discipling (Chicago: Moody Press, 1979), 19-22.

로 11절에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12절에는 양육의 목표를 말한다. 이 양육의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목표와 일치한다.

이처럼 양육이란 믿음이 약한 자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새롭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도와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양육의 중요성

먼저 양육은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⁵²⁾ 첫째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 둘째는 지속적으로 헌신적 삶을 살도록 개발해 주는 단계, 셋째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단계, 넷째는 지역교회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단계와 다섯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믿음을 나누는 단계 등이 있다. 이러한 단계별 양육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초신자나 회심자의 취약점이 드러난다

사탄의 공격은 어느 부분이든지 신자의 약한 모든 부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초신자에게는 더욱 잘 접근하게 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다(마 4:1-11; 막 1:12-13; 눅 4:1-13). 따라서 양육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며 암송케 해서 삶에 적용시키며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바울은 데모데에게 이런 진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딤후 3:16-17).

나. 변화된 삶을 가져온다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에 나타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모습을 양육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성도는 양육을 통해서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거듭난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성품은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때

152) Billie Hanks Jr,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134.

문에 우리들은 변화되지 않은 죄악된 그대로의 성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찾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다. 제자 삼는 사역을 효과 있게 할 수 있게 한다

양육자의 개인적인 사역에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제자 삼는 일이다. 제자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자신을 통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육성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이다.

라. 제자 삼는 사역은 영적인 배가(multiplication)를 동반한다

영적 생산과 더불어 영적 재생산은 양육의 초점이 된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부탁했다(딤후 2:2).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배가란 4세대에 이르는 제자훈련을 가리킨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마태복음 28장 10-20절의 대사명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개인 양육의 단계로 첫 번째의 증거 하는 사역을 통해 얻어진 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제자훈련을 통해 양육한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자로 양육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배가의 단계로 디모데 후서 2장 2절의 영적인 4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3. 양육 모델

가장 으뜸 되는 제자 훈련가는 역시 우리의 주 예수그리스도이시다.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생애를 통한 양육의 원리를 조명해 본다.

가. 예수님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단지 12명의 제자들만을 뽑아서 특별히 훈련시켰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수억의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었으나, 3년 반에 걸친 그의 공생애는 자신의 삶을 주로 12 제자들에게 바쳤음을 의미한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12명의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을 복음서는 증언해 주고 있다. 이것은

그의 지상에서의 제한된 생애 전부가 전략적이었고 그의 전략은 선택한 소수의 무리와 함께 거함을 통해 재생산하는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이었으며 그의 생애의 대부분이 이를 위해 투자되었다¹⁵³⁾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의 제자훈련을 살펴보면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접촉으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을 제자들을 택했다(막 3:14). 당시의 제자는 교육 전달의 매개체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거하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제자와 함께 거하면서, 즉 접촉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양육하셨던 것이다.¹⁵⁴⁾ 이것은 일종의 멘토리(mentoree)의 과정으로 예수님은 멘토(mentor)였고, 제자들은 멘티(mentee)였다.¹⁵⁵⁾

둘째, 위임으로 예수님은 손수 일을 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일을 분담시키셨다.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위임하셨다(요 21장). 주님은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여 복음전파 사역을 위임하셨다(마 28:19; 막 16:16; 눅 24:47). 위임은 주님의 사역을 배가하는 좋은 방법이다.

셋째, 집중으로 주님은 대중과 일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몇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 왜냐하면 육성은 개인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 전도 및 마스크를 통해 전도활동을 벌이는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은 “모든 전도는 개인적이어야 한다. 대중적 접근은 단지 영혼 구원을 위해 접촉점을 만들기 위한 채널에 불과”하다고 했다.¹⁵⁶⁾ 주님은 대중에게는 비밀이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는 허용하셨다.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는 변화산상에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과 구별하여 훈련시키셨다(막 4:1).

넷째, 배양으로 생명력 있는 분위기는 양육의 필수조건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랄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마련해 주셨다. 마치 인큐베이터 속의 어린아이에게 온도와 산소와 영양분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듯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은 이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처하셨던 모습을 잘 보여준다(요 11:33). 따

153) 죠이 선교회 편, 예수그리스도의 제자훈련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부, 198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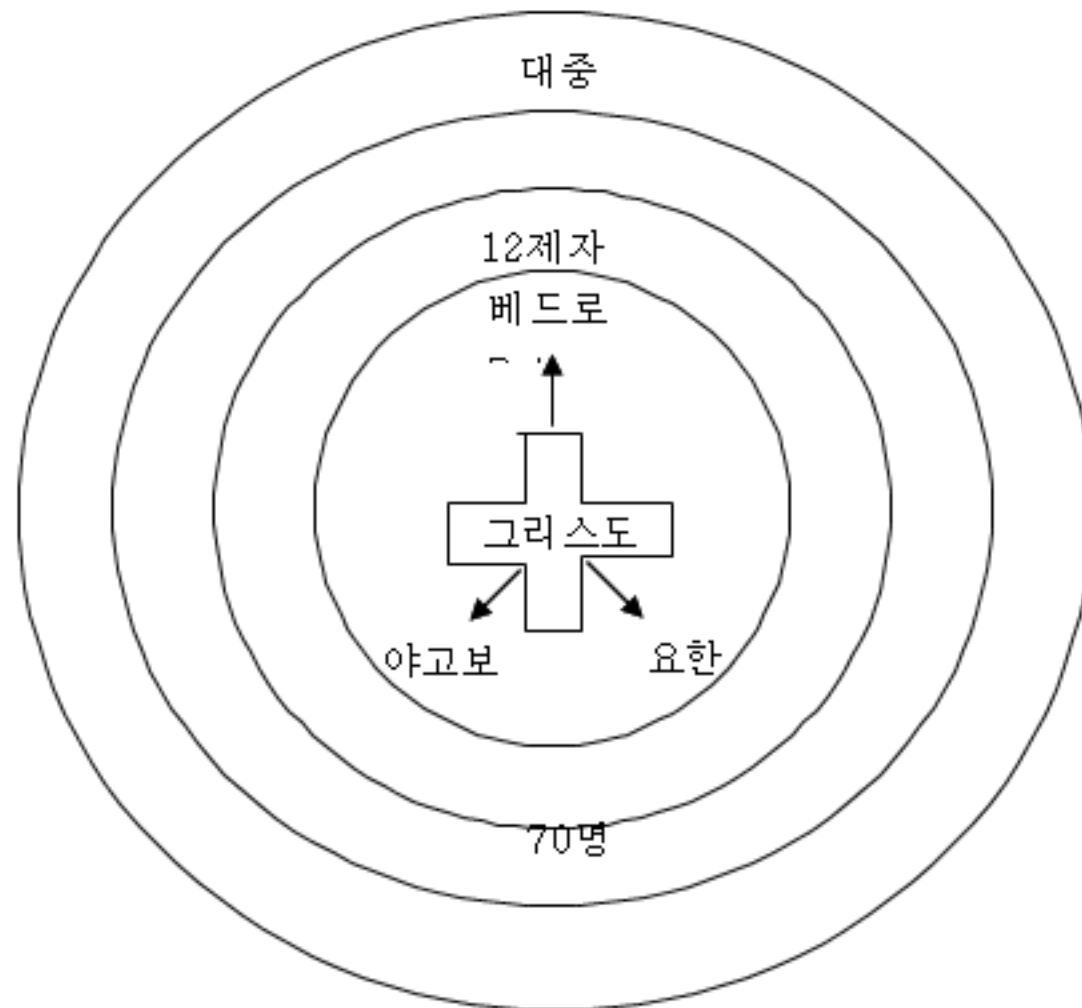
154) Leroy Eims, 제자 양성의 비결, 김의자 역 (서울: 보이스사, 1983), 50.

155) 박건, 멘토링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2001), 5.

156) Waylon B. Moore, New Testament Follow Up, 23.

라서 양육을 위해서는 훈련자가 피훈련자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것과 적절한 주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 예수님의 집중 원리¹⁵⁷⁾



다섯째, 시간으로 육성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데에 3년씩이나 투자했다. 육성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다.¹⁵⁸⁾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실망시켰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다.

나. 바울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회심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멀리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육성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가르친다고

157) Billie Hanks Jr,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150.

158) Ibid., 17.

말했다. 만약에 누구든지 육성을 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에게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골 1:28, 29). 그의 대표적인 사역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인에 대한 양육, 빌립보인에 대한 양육, 디모데에 대한 양육 등으로 간추릴 수 있겠다.¹⁵⁹⁾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부터 4장에서 양육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바울이 그들을 양육한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그들을 위한 기도(1:2-3; 3:10), 편지, 권면, 격려(1:6-9), 그들의 본이 됨(1:5-6; 2:10), 궁극적인 목표 제시(2:12; 4:1), 파송(3:6), 물질 사용(2:7, 9, 11), 영원한 가치를 가르침(4:16, 17, 5:6), 교리를 가르침(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오해를 다루고 있다.), 열어야 할 미덕을 인식시킴(사랑 3:12; 4:9, 순결 4:1-7, 정직 4:12) 등이 있다.

빌립보인에 대한 양육에서는 편지, 기도(1:3-6, 9-11), 디모데 파송(2:19-23), 직접 가기를 원함, 자신을 본받으라고 함(3:7; 4:9) 등이 있다.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양육에서는 디모데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때 디모데는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확신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보았다(행 16:17-18). 디모데 후서 3장 10-11절에서는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라고 한 것을 보아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자신의 목적을 나누어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훈련을 필요로 하며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에 가길 원했지만 갈 수 없을 때 자신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성했던 디모데를 보냈다. 결국 양육을 통해 함께 일할 동역자를 얻게 되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조차 경험이 많고 능숙해진 디모데에게 교훈하며 육성하기를 끝마치지 않았다.

위의 세 가지 양육 모형에서 바울의 양육 방법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것은 개인적 접촉과 개인기도, 동역자 파송(위임), 개인서신, 공동서신 등이다.

4. 지도자

159) Marjorie Soderholm, Salvation then What? (Minneapolis: Free Church Publication, 1968), 14-20.

예수님과 바울의 모델을 통해서 양육에 있어서 지도자의 위치는 어느 것보다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도자의 자질에 따라서 그 양육의 성패가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양육, 훈련의 위대한 전략가였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인 동시에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트레이너였다.¹⁶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¹⁶¹⁾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특별히 지도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이런 방법은 지도자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가. 지도자의 자질

좋은 지도자의 자질은 자신이 합당치 못하다고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결코 쓰시지 않는다. 모세의 경우나(출 3:11) 기드온(삿 6:15), 예레미야(렘 1:6)의 경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리하여 자신의 부적합성을 고백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건 없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한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확실한 사실이다(출 3:14-15; 삿 6:16; 렘 1:7-8). 결국 절대적으로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원천을 확신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다루는 방법이다.¹⁶²⁾

지도자는 이런 기본적 바탕 위에 주님이 주시는 지도자적 자질을 배우고 얻게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배출해 내는 사람이나 제자도를 육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제자훈련자(the disciple-trainer)의 자질들을 조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¹⁶³⁾

나.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지도자적 자질

그리스도의 인격을 연구하는 일은 바로 그분의 자질을 연구하는 일일 것이다.

160) P. T. Chandapilla, 예수 위대한 훈련자 (서울: IVP, 1981), 1

161) Leroy Eims,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1982), 11.

162) Ibid., 12-19.

163) P. T. Chandapilla, 예수 위대한 훈련자, 2-57.

그리스도의 지도자적 자질을 논하기 전에 지도자의 출현과 접촉개입을 다루고 이어 주님의 자질들을 연구한다. 이것은 주님의 자질들에 대한 전후 상황을 제시한다.

(1) 성육신(Incarnation)

주님은 사람의 형태로 낮아지셨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구체화(embodiment)되신 것을 말한다. 양육자는 자기 스스로 다리를 놓아 장애물을 건너 피 양육자의 수준에까지 가야 한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하시는 첫 번째 방법으로 그들과 같이 되신 것이다(요 1:1-13, 14, 18; 빌 2:5-8).

(2) 동화(Identification)

성경적 의미에서 동화는 성육신의 연장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연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낮은 실체는 풍성해지고 더 높은 실체로 변형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우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동화된 깊이를 말해주고 있다.

(3) 선택성의 자질(The Quality of Selectiveness)

선택성의 자질은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훈련시키는 것에 관련된 첫 번째 자질이다. 이 자질은 다양하고 수많은 사물이나 사람들로 부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예수께서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했다(눅 6:12, 13). 주님은 자신이 원했던 자들을 부르셨다(막 3:13). 70인의 제자(눅 10:1-2, 17:20),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3제자는 주님과 가까웠다(막 9:2; 마 26:36, 37). 주님은 많은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택했다(눅 6:12-16).

(4) 집중의 자질(The Quality of Concentration)

이것은 지도자가 선택된 사람들의 한 집단에게 독점적인 관심을 갖고 목표가 뚜렷한 정도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집단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수님의 전 생애의 관심의 중점은 12제자였다(요 13:1). 혈연 관계 보다는 자기 사람들을 더 중히 여겼다(마 12:46-49).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눅 8:23; 요

4:34; 눅 22:8, 17-18; 막 6:31; 눅 22:39, 40, 8:1).

(5) 의사 소통의 자질(The Quality of Communication)

지도자가 다른 사람에게 실증적 상황이나 생활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효과나 내용 면에서 손실 없이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discourses)이나 대화를 통해 의사를 소통하셨다. 여기에서 말씀이라 함은 어떤 화제를 다루는 의식적인 대화를 말한다.

주님의 말씀은 실존적으로 포괄적인 것이었으며 생활환경의 모든 부분에 걸친 충분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말씀(마 5:1-2)을 통하여,¹⁶⁴⁾ 교훈(마 16:7-10), 비유, 우화(마 18:21-35; 요 15:1-6),¹⁶⁵⁾ 표적과 기사(요 2:11), 행동, 생활 상황을 통하여(요 4:27; 14:11, 31-34), 무반응(요 11:6, 14, 15), 전체적 삶과 인격(요 14:9) 등이 있다.

(6) 투명성의 자질(The Quality of Transparency)

피양육자들이 양육자를 완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피양육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에 충실하며 기탄 없이 또한 충분히 자신을 노출하여 열어 보일 수 있는 자질을 말한다. 즉 자신의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투명성의 자질은 진실도(the degree of reality)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 점진적이었으며(마 16:13-15, 17:1-2) 그 주도권은 주님께 있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위대한 비밀과 생애의 목적을(눅 19:10; 요 4:31-38; 6:11; 11:41), 행하실 계획을(마 16:21) 인격의 극치를(막 9:2) 보여주셨다.

(7) 유용성의 자질(The Quality of Availability)

양육자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피양육자에게 맡기고 그들을 신뢰함으로 피양육자들에게 지도자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게 해주는 지도자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을 옹호했다(마 12:1-8).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삶의 갖가지 곤경 속에 처해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

164) Herman H. Horne, 예수님의 교육방법론, 박영호 역 (서울: CLC, 1982), 90-103.

165) Ibid., 105, 123.

셨다(막 4:37-40).

(8) 실제성의 자질(The Quality of Practicality)

지도자가 자신의 이상이나 생각하는 것을 현실화하여 피양육자들이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 지도자의 이상을 경험할뿐더러 같이 나눌 수 있게 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말하는데, 분명히 주님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일들을 시켰다(마 14:16-17; 막 6:45, 48). 그 이면에 독특하고도 명확한 뜻을 가지셨다.

(9) 이해 평가의 자질(The Quality of Appreciation)

양육자들은 피양육자들을 상세히 또 개별적으로 관찰해서, 그 결과로 공정한 평가와 판단을 내리며, 그 내린 결과를 피양육자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양육자에게 필요한 것이 이해 평가의 자질이다. 예수님은 탁월하신 이해 평가의 자질을 갖고 제자들을 주의 깊게 보았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칭찬해 주셨고,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면에서나(마 16:18; 요 1:42) 그룹을 통하여(마 13:10-18; 17:19-20)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셨다.

(10) 초지일관의 자질(The Quality of Stickability)

초지일관의 자질이란 훈련자가 자기 책임대상인 피양육자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양육할 수 있는 자질을 말한다. 양육 사역을 하다가 보면, 엄청난 도전이나 실망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렇다 할 만한 확실한 결과들이 없어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훈련의 전과정을 끝마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 또한 이것은 진정한 사명감의 소유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식이 된다.

주님은 공생애를 끝마칠 때 다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가지셨다(요 17:4). 12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요 13:1). 예수님은 또한 자기를 버리고 떠난 제자에게까지 찾아가 장차 해야 할 큰 역할을 맡겨 주셨다(요 6:66-68; 17:6-7) 또,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다(마 28:16-20; 요 21:1-18; 행 1:6-9).

이러한 기초적 자질 위에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소들을 몇 가지만 열거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수 1:8; 딤후 3:16-17)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훈련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이다. 둘째는 기도인데 이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 안에서 삶을 살도록(딤후 2:1, 2) 기도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고전 3:6) 기도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교제가 있다. 교제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훈련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엡 4:11-13)는 전제 아래, 교제를 통하여 이 은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혼자 힘으로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2장).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복음이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양육은 그 출발점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한다.

5. 양육의 목표(Goals of Follow Up)

제자훈련에서 양육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단계를 설정해 놓고 행하고 있다.

가. 사역과 목표

모든 사역에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가 없다면 그 사역은 방향성을 잃게 된다. 목표 없는 사역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뿐이다. 때문에 모든 양육 사역,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칼 윌슨(Carl Wilson)은 이 기본적인 목표를 5가지로 서술하고 있다.¹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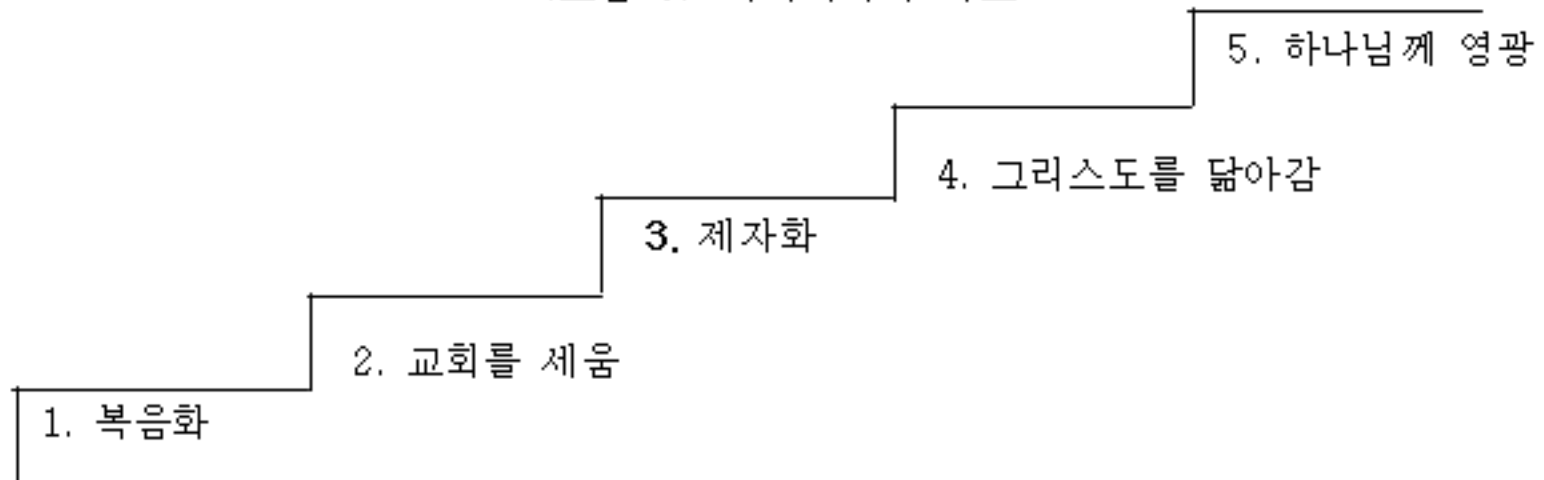
(1) 복음화(Evangelizing)

양육의 기본이 되는 조건은 회개와 신앙을 갖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자랄 수도 없는 것이다. 주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족속과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다(마 28:18-20; 막 16:15; 눅 24:46-47). 이 명령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완수해야 할 일이다. 세계를 복음화 하는 목표는 주님이 가르치신 지상명

¹⁶⁶⁾ Carl Wilson, With Christ in the School of Disciple Building (Grand Rapids: Zondervan, 1981), 47-52.

령이다.

〈그림 3〉 목회사역의 목표



(2) 교회를 세움(Church Building)

주님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어진 영적 선물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엡 4:11, 12). 교회를 세우지 않고는 양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전 14:2, 14:26; 히 10:25, 13:7; 살전 5:12, 13; 벧전 5:2-4). 그러므로 교회를 심고, 세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기본적인 목적이 된다.

(3) 제자화(Disciple Building)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 ‘제자’란 단어는 복음서에 232번 사도행전에 27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제자화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자화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복음화하고, 그들을 양육자의 수준까지 이끌어 주는 것이다. 디모데 전서 2장 2절은 제자훈련의 관계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4) 그리스도를 닮아감(Christlike Sonship)

로마서 8장 28-2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부름 받은 자들이 그의 형상을 따라 맡아들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창 1:26-27). 결국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찾아갈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이다.

(5) 하나님께 영광(Glory to God)

위의 4가지 목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전제로 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신앙고백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묻고 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¹⁶⁷⁾ 모든 활동의 전제조건은 또한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광의적 의미에서 육성이란 여기의 5가지 목표를 다 포함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성화(sanctification)라고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육성은 제자화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제자 삼는 사역은 주님의 명령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양육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양육과 제자훈련을 거의 동등한 의미에서 생각하기로 한다.

나. 제자훈련의 목표(Goals in Discipling Others)

목표 없는 훈련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목표는 안다는 것은 왜 그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몰랐을 경우보다는 목표를 알 때, 더 많은 훈련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자훈련은 훈련자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피훈련자에게 제자훈련의 목표를 정확히 숙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제자훈련의 목표에 대해서 하워드 헨드릭스(Howard Hendrick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양육자를 성숙시키고, 무장시키며 그들 스스로 영적 3세대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것”¹⁶⁸⁾이다.

(1) 성숙된 사람(People who are mature)

제자 삼는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목표는 성숙된 사람으로 개발시키는 일이다.¹⁶⁹⁾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다. 여기서 ‘완전한’이란 말은 헬라어로 ‘텔레

167) James Benjamin Green,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조해설 (서울: 성광문화사, 1981), 11.

168) Allen Hadidian, Successful Discipling (Chicago: Moody Press, 1979), 29-30.

169) Ibid, 32.

이오스'란 말로 'complet', 'perfect', 'whole'이란 뜻으로 사용되며 'fullgrown', 'mature'란 뜻으로도 사용된다.¹⁷⁰⁾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는 양육의 첫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의 표식을 게리 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첫 번째 표식은 성격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엡 4:13).¹⁷¹⁾ 이것은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적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기보다는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표식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할 때 가능한 일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까지도 십자가에 못박을 때만이 가능하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롬 4:20). 바울 역시 자신의 생애가 주님의 것이며 주님만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다(갈 2:20). 세 번째 표식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의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지게 된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위사람들은 필수조건은 아니었다. 물론 주님은 주변의 인물들을 필요로 하실 때가 있다. 그들을 사용하신다. 예수님께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실패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셨다. 성숙한 자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실망하지 않는다. 네 번째 표식은 지속적인 동행이다. 바울은 지속적인 삶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빌 3: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즉, 배운 바 그대로 계속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표식은 성경적 사실을 이해하고 확신에 거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4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주변의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증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신앙은 성숙한 사람의 훌륭한 표식이 된다.

(2) 배가하는 사람(People who are multipliers)¹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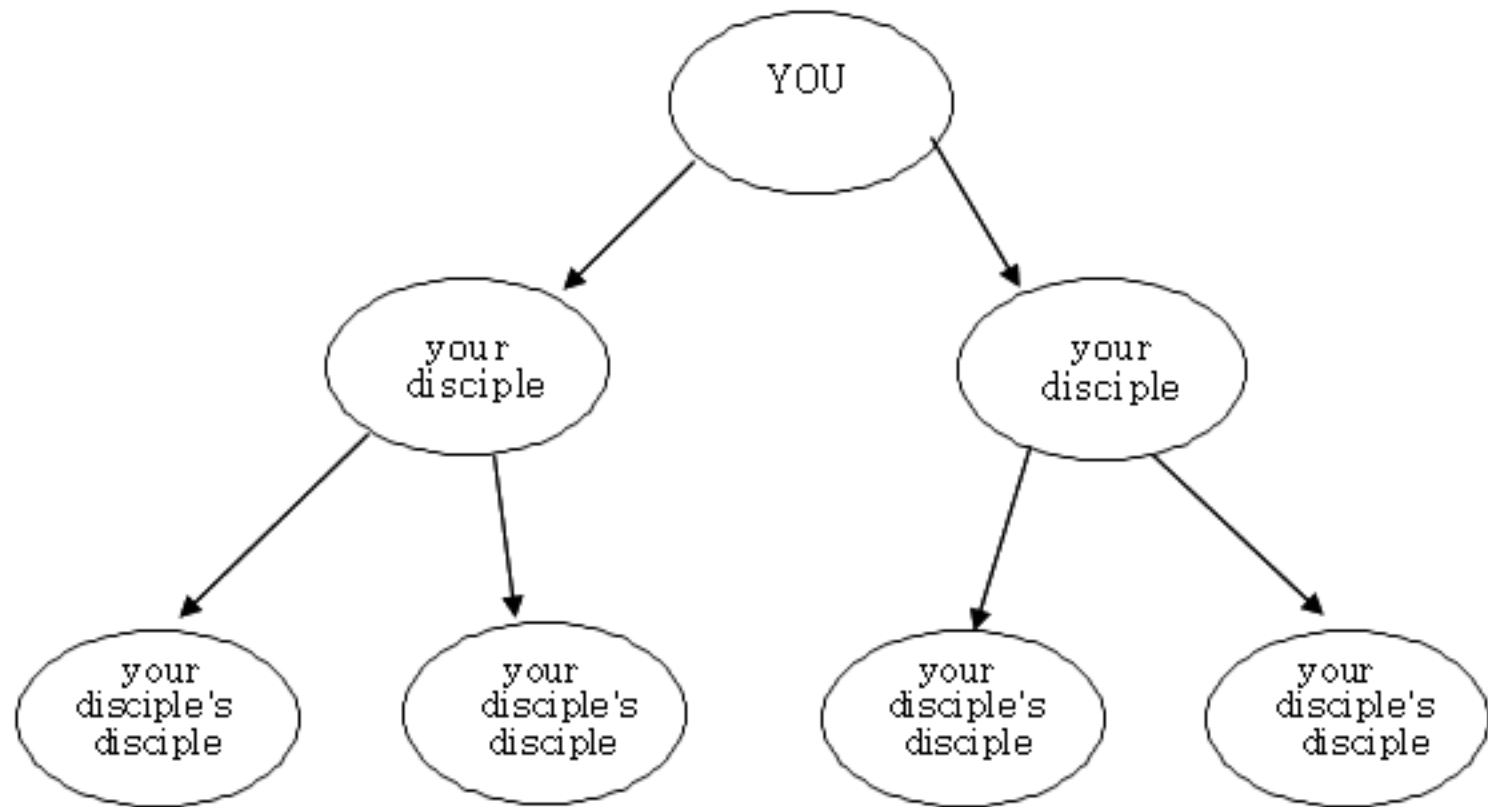
170) William F. Arndt & F. Willour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809.

171) Billie Hanks Jr,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185

172) Allen Hadidian, Successful Discipling, 37-47.

배가하는 사람이란 단순히 전도하는 사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배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한 후, 그가 다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영적인 3세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림 4> 영적 3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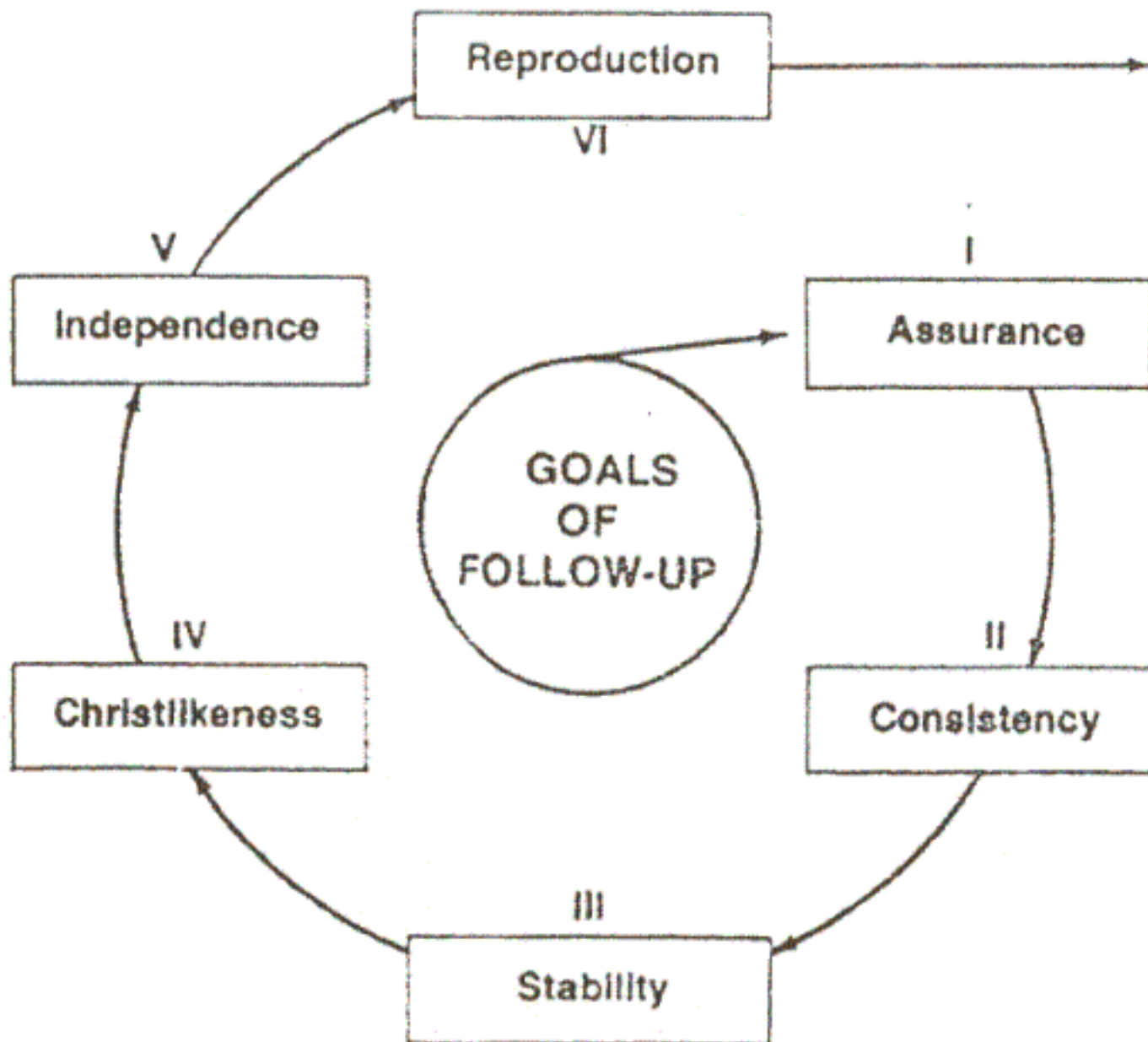


'you'가 1세대라면 'your disciple'은 2세대 'your disciple's disciple'은 3세대이다. 이러한 영적인 배가의 모습은 성경에서 많은 예를 찾을 수가 있다.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는 그들을 따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기독교의 생명은 이 배가의 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육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그들 자신의 제자를 삼았다. 그들 중에 하나가 빌립이며,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교를 맡은 내시에게 말씀을 전해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내시는 아프리카에 기독교회를 세우는 큰 일을 했다고 전해진다. 배가과정의 성공의 열쇠는 제자를 강도 깊게 훈련시키는 일이다. 한 사람을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일에 실패할 때마다 제자가 거두는 열매는 반감될 것이다. 제자를 배가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신

약의 비전이며 방법이다. 제자의 도는 어느 특정한 기관이나 특정 교회만의 사역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번식을 통해서 영적인 세대가 증식되어 가길 원하신다.

<그림 5> 양육의 목표



반면 게리 쿤은 양육의 목표를 6가지¹⁷³⁾로 말하고 있는데 첫 단계로 구원의 확신을 꼽는다. 구원의 확신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구원을 의심하는 자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더홀름(Marjorie Soderholm)은 확신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잘라서 말하고 있다.¹⁷⁴⁾

두 번째 단계로는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기본적인 진리에 관해 적용된 삶을 살아야 한다. 헌신의 삶을 개발해야 한다.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친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성경 암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단계이다. 이 때는 그룹과 개인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 네 번째 단계로는 다른 영혼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단계이다. 여섯 번째 단계는 재생산이다. 배가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양육의 마지막 목표가 된다.

하디디안(Hadidian)과 쿤(Kuhne)를 비교해 볼 때, 두 이론 모두 성숙의 영역은 전인격이며 질적 성숙은 전도를 통한 배가의 효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 사명과도 일치한다.

제 2 절 외국인 근로자 양육

1. 외국인 근로자 양육 사역의 원칙

173) 조이선교회, 예수그리스도의 제자훈련, 34.

174) Marjorie Soderholm, Salvation then What?, 10-11.

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양육, 훈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제자훈련 방법을 응용한 제자훈련 방식이 필요하다. 즉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타문화권 제자훈련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몇 가지 원리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이 사역이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일관된 원리가 필요하다.

가. 성령께 의존한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문화와 언어,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개인적인 기질과 습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과는 매우 이질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할 때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매순간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교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행 1:4-5, 8).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선교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존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나. 성경이 유일한 원리와 기준이다

선교 사역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확고한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자훈련에서는 처음부터 무엇을 해도 되고, 안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기준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명백히 정의된 것들이어야 한다. 이처럼 기준에 대한 강조는 책임 있는 제자로서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¹⁷⁵⁾

다. 예수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제자 훈련자와 훈련을 받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먼저 제자 훈련자와 훈련을 받는 각 사람들, 그 다음은 훈련자들 간의 서로의 끈질기면서도 질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자 훈련자는

175) Norman E. Happer, 현대기독교 교육, 이승구 역 (서울: 정음출판사, 1984), 69.

피훈련자들에게 전인적인 관심을 갖고 때로는 지도자로, 어떤 경우에는 친구와 같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로, 아니면 훌륭한 선지자 중의 한 사람 정도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¹⁷⁶⁾ 이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는 제자훈련 내내 계속 그들 안에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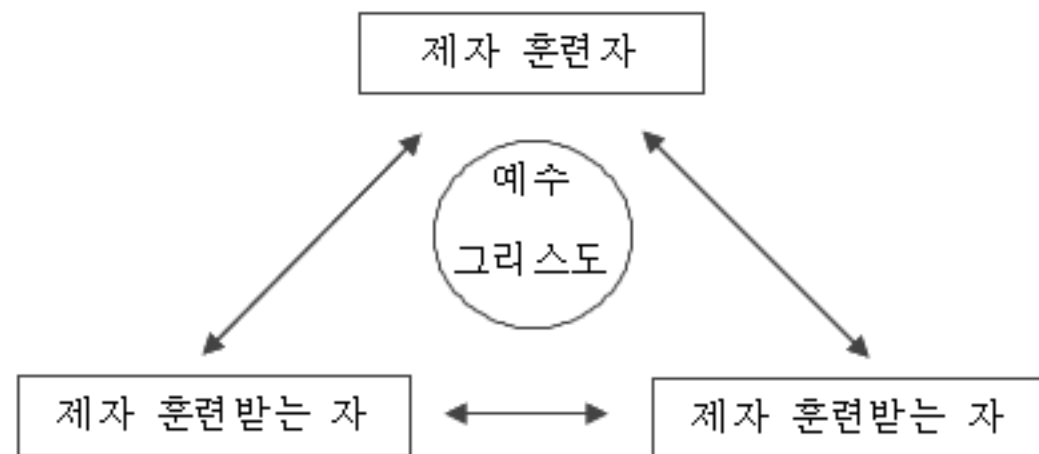
라. 교회 중심으로 사역해야 한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 즉 지역교회의 활동을 통한 진리 자체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과정을 통해 신앙생활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사실상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수단이 곧 교회이다. 즉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교회로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다.¹⁷⁷⁾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면에서 아주 지적이며 논리적이고 또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수용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들은 그가 말하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다면 거의 관심이 없다. 따라서 교회의 소그룹에서의 토론이나 개인적인 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삶의 모습 곧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 이때 절대로 주의할 것은 강압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6> 양육의 관계

176) 전재욱, 타문화권 선교이해, 158.

177) Billie Hanks Jr, William A. Shell. Shell, 제자훈련, 75.



마. 준비된 훈련자가 양육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목표와 전략과 자질을 가진 지도자가 관건이다. 즉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아 사는 사람, 자신이 위임받은 종임을 인식하는 사람, 성령님을 의존하는 사람, 피훈련자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생활 공동체 내에서의 생활사역으로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 자신의 영적 생활을 잘 하는 사람, 성경의 큰 그림(세계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을 보는 사람,¹⁷⁸⁾ 제자들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 학문과 정신을 조화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로 섬길 때, 그 사역은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훈련자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자녀를 향한 영적 부모의 영적 양식 공급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호, 지지, 후원 그리고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까지의 눈물어린 기도와 훈련은 한 영혼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훈련자가 아니라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전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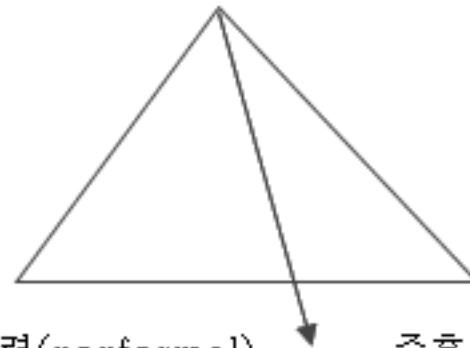
또한 훈련자는 제자훈련 방법에 능숙해야 한다. 즉 개인 대 개인 및 그룹을 통한 가르침, Real need & Felt need를 적절히 채워줌, 배가의 목표를 위한 성숙과 보존, 각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성실한 준비, 자신이 먼저 가르칠 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화, 교제 후에 피드백(feed-back)을 통한 평가, 명백하고 실천 가능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 등등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공식적, 비공식적, 비형식적인 훈련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모임과 제자훈련의 균형이 필

178) 김재현, 박충규, 교회·교회성장·사랑방 전도훈련 (서울: 에베소 서원, 1994), 82.

요하다.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교회 공동체나 직장 모임 혹은 쉼터)과 개인 제자훈련과의 관계가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 양육의 형태

공식적이고 훈련자 중심 훈련(formal)



필요에 따른 비형식적인 훈련(nonformal) 즉흥적이고 지속적인 훈련(imormal)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하고 있는 가시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성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⁹⁾ 따라서 교회 생활과 직장, 숙소, 소그룹 공동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교제의 체험과 친밀한 개인적인 역동성을 경험케 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예비적 선교사로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제자훈련을 하는 중에 어려운 점은 그들의 세계관과 정체성, 문화와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안에 서구 선교사들의 유물인, 타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 고유의 세계관이나 가치관들은 다 부정되어야 한다¹⁸⁰⁾는 사고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고 있다. 그 결과 그들 안에 깊게 자리잡고 있는 기존 종교 혹은 관습들을 무시하고 제자훈련을 시키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우리들은 피훈련자들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와 다른 이방인임을 기억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 세계관등을

179) Ibid., 101.

180) 전재옥, 타문화권 선교이해, 165.

갖고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른 이방인들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우리 자신도 그들에게는 이방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훈련자는 조심하지 않으면, 훈련자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사역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훈련자는 항상 피훈련자 중심의 사고방식 속에서 양육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셋째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매우 물질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이 땅에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을 물질과 상관없는 심지어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때문에 그들을 양육할 때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루어야 한다. 넷째는 그들은 대개 율법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율법적이고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값없이 거저 주는 은혜의 복음은 별 관심을 끌지 못한다. 복음과 제자로서의 삶이 값없이 은혜로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값 지불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값 지불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2. 외국인 근로자 양육 목표

외국인 근로자 양육의 목표는 일차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목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일차적인 목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다.¹⁸¹⁾ 다음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성장케 하는데 있다. 그래서 그들이 월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왕국의 확장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있다.

가. 전체적인 목표

(1)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그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적인 세계관과 건전한 인격의 형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데 그 목표가 있

181) Leroy Eims, 제자 양성의 비결, 김의자 역 (서울: 보이스사, 1983), 130. 행 14:22, 골 2:6-7.

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과정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로 문턱은 높지 않지만 수준은 허물지 않아야 한다.

(2) 공동체 속의 지체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제자훈련이 되는 것보다는 집단 리더십에 의해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훈련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¹⁸²⁾ 양육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로를 향한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봉사를 배우며, 사랑(love)과 빛(light) 가운데 행하는 삶을 통해 성숙한 대인관계를 배우며, 나아가 공동체 속에서 리더로서 세워지고 훈련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¹⁸³⁾

(3) 세상을 향한 증인

제자훈련을 통해 전도와 육성의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훈련자가 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 나라를 복음화하고 더 나가서는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증인으로¹⁸⁴⁾ 세워지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그리며 그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개인적인 목표

(1) 인간관계

양육은 솔직한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 일어난다.¹⁸⁵⁾ 따라서 양육자와 피양육자간의 인격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가) 영적인 교제(Spiritual Sharing)

예배, 성경공부와 기도, 찬양, 성경 묵상 등을 통해 영적인 부분을 채워준다.¹⁸⁶⁾

182) 만약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양육해 준 사람의 제자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게 된다.

183) 김재현, 박충규, 교회·교회성장·사랑방 전도훈련, 39

184) 마 28:18-20, 지상명령

185) Billie Hanks Jr,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170

186) Leroy Eims, 제자 양성의 비결, 143.

이때 주의할 점은 프로그램을 따라가느라고 지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

(나) 사회적 교제(Social Sharing)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말 그대로 외국에서의 삶이다. 따라서 이들은 더 많은 외로움에 시달리게 된다. 이럴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심지어는 취미 생활 등에 관한 면들을 그들과 함께 시간을 사용하면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나눔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제자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때 주의 할 점은 소위 흥미 위주의 유희적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개인적인 교제(Personal Sharing)

개인적인 교제는 주로 은밀한 이야기들, 깊숙한 내면의 문제들을(진로, 결혼, 가정 등) 나누며 다룬다.¹⁸⁷⁾ 이때 너무 협오감을 주거나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태도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 헌신(Commitment)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결단하여 좃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견고함, 그리고 정과 욕심으로부터의 자유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되, 사명으로 사는 헌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한다.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깊은 고려와 결단을 요구한다.¹⁸⁸⁾

(3) 확신(Conviction)

나를 이런 삶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고귀한 삶을 그것에 드리며 나아가 목숨보다 소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고 비록 상황이 거꾸로 가더라도 타협치 않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한다. 즉 이 확신의 단계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서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단계에 이르게 한다. 따

187) Billie Hanks Jr,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168.

188) Ibid., 147.

라서 이러한 확신은 그 자신의 성경공부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밝혀낼 때 생겨지게 된다.¹⁸⁹⁾ 이때 훈련자가 신경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른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이나 소신을 믿음으로 잘못 오인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는 것이다.

다. 공동체로의 목표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일례로, 우리는 지난 1980년대에 여의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했던 집회들을 회상할 수 있다. 그 당시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으며, 특히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방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단지 외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의 단합과 세력만을 과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명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¹⁹⁰⁾

(2)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일군으로 양육을 받게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일군을 만드는 일에는 개인적인 육성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일대일 제자훈련의 약점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 훈련자의 제자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분파적인 요소를 배태하게 됨과 아울러서 훈련자가 갖고 있는 단점까지도 그대로 전수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런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차훈련(cross training)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주일학교, 예배, 소그룹 등 여러 가지의 관계성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다.¹⁹¹⁾

(3) 공동체 자체를 세워 가는 목표를 갖게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류를 공동체로 지으시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존

189) Leroy Eims, 제자 양성의 비결, 166.

190)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IVP, 1996), 10.

191) Billie Hanks Jr,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206.

재하는 공동체적 특성 곧 합일성, 친밀성, 상보성이 반영되도록 하셨다.¹⁹²⁾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적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계 21:9-11).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제2의 이스라엘, 교회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갖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보루이며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대안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다.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아갈 자신의 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할 중요한 목표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곳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움과 동시에 그들의 모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 3 절 외국인 근로자 양육의 실제

1. 양육의 단계적 목표와 방법

성장의 단계를 구분짓는 것은 사람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지만, 여기서는 한가지 전형적인 예를 취해 연구한 뒤에 비교 논술하기로 한다.

네비게이토의 지도자인 르로이 에임즈(Leroy Eims)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초신자(young christian), 제자(disciple), 일꾼(worker), 지도자(leader)로 각각 자격을 정해 놓고, 회심자가 리더까지 성장하는 단계를 확립과정(establishing)과 무장과정(equipping), 철저한 개인 훈련과정(in-depth personal training)이라고 칭했다.¹⁹³⁾ 여기에 초신자부터 제자에 이르는 과정을 2단계로 나누어 회심자(convert)에서 초신자(young christian)가 되는 과정을 기초 양육과정(basic follow up)이라고 칭하고 초신자에서 제자가 되는 과정을 장기 양육과정(long term follow up)으로 나누어 놓고, 무장 과정과 철저한 개인 훈련 과정을 인격 형성과정(the building process)으로 묶어 놓기도 한다.¹⁹⁴⁾ 이것은 네비게이토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성경 공부과정을 위의 성숙과정과 연관시켜 봄으로 위의 성장과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¹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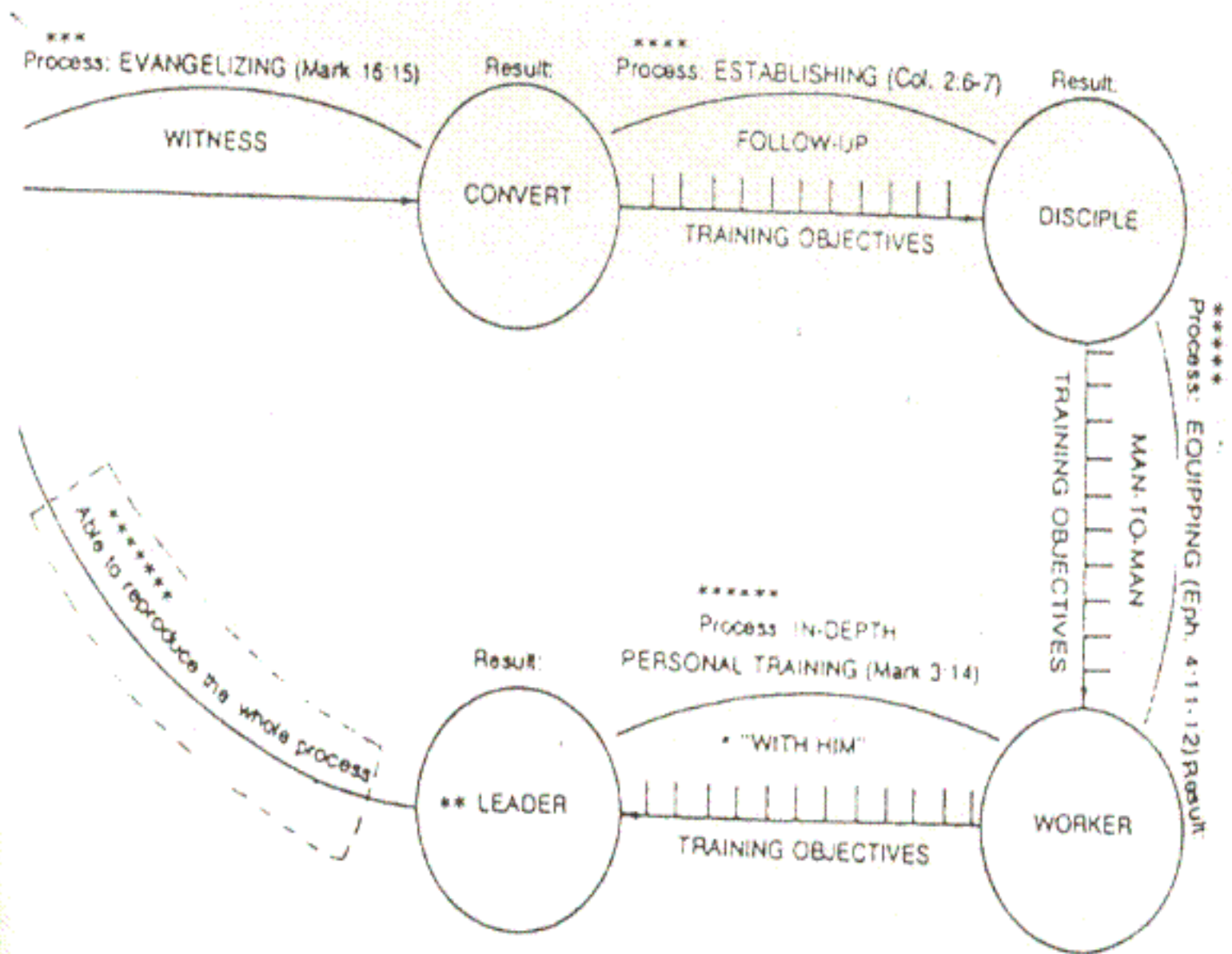
192)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67.

193) Leroy Eims, 제자양성의 비결, 331-335.

194) The Navigators, NAVPRESS 80/81 (Colorado, Springs: Navpress, 1980), 20-21.

195) 김혜석,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1980), 75-77.

〈그림 8〉 양육의 단계



양육의 단계적 목표와 방법으로는 1단계로 전도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목표는 획득, 즉 그리스도인의 탄생(막 16:15)을 목표로 하며 그 훈련과정은 첫째는 개인전도로, 사영리, 브릿지, 복음제시개요 등이 있다. 둘째로는 전도성경공부 과정으로, 열 단계 성경교재 입문(CCC)과 One To One(IVP)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초청 전도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도설교, 창조냐 진화냐, 삶의 의미 등을 공부한다. 네 번째로는 문서전도 과정이 있는데, 기독교의 기본진리(존 스토티, 생명의 말씀사), 내가 믿는 기독교(C. S. 루이스, 대한기독교서회), 편견 없는 기독교를(존 알렉산더, IVP) 등이 있다.

2단계는 양육 과정으로, 목표는 세움(골 2:6-7)에 있다. 세움이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성장해서 확신있는 제자가 되게 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의 훈련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은혜로 주어지는 것,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 말씀과 함께 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수레바퀴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성경묵상(Q.T) 등이 있고, 전인적인 신앙 성장을 위한 영역으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기독교 세계관, 인생관), 성경적 시간관, 생활 원리 계획, 우선 순위, 순종, 간증, 전도법, 성구 암송, 금전 관리, 주재권(Lordship), 생활 속의 기도 등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제자화의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때는 지상명령, 승법번식, 신앙 고백, 하나님 나라, 묵상, 성경과 해석, 제자도, 영적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등에 관해서 공부한다.

3단계로는 훈련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의 목표는 신앙적인 무장(엡 4:11-12)을 하는 것으로, 복음 안에서 헌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던져진 사람, 일꾼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그 훈련 내용은 사역준비와 실제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있다. 먼저 사역 준비로는 제자화 과정의 개관, 육성의 철학, 하나님의 돌보심, 상담 원리,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실습),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성령 안에서 증거 하는 방법,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소그룹 멤버 양육 방법, 좋은 질문의 형태와 특징, 그룹 토의 인도법, 그룹 토의와 양육, 청지기 생활, 이성교제와 연애, 그리스도인의 결혼, 개인 성경공부법 등을 훈련시킨다.

또한 실제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제자도의 원리, 훈련의 철학, 제자도의 헌신, 가르침의 원리, 배움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교제, 영적 전쟁, 성품 개발(섬김, 겸손, 순결, 사랑, 용서, 존경, 하나됨, 세워춤, 믿음, 절제), 교회론, 종말론, 역사관, 사회와 정의, 팀사역, 선교 등등의 내용을 갖추게 한다.

4단계로는 파송(send man)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 과정의 목표는 동역(동역자, 훈련자, 지도자, 롬 16:21)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 그 훈련 내용으로는, 지도력(서론, 정의, 기획, 조직, 지도, 평가, 동기부여), 대인 관계, 제자훈련의 원리, 모범,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경과 권위, 설교법, 성경 교수법, 설교 연습, 독서, 공동생

활, 문서선교, 일군선발 등의 내용이 있다.

〈표 7〉 양육의 단계와 상태

증거	회심	양육	제자
불신자	생명을 가진 자	자급자족하는 자	다른 사람을 돕는 자

2. 양육의 내용

양육은 헌신과 성경교리, 제자훈련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세분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가. 헌신의 영역

이 영역은 초신자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성장에 관계된 개인 양육의 문제를 다루며 세분된 영역은 다음과 같다.¹⁹⁶⁾ 구원, 확신, 헌신, 기도, 암송, 성경공부, 고백, 시험, 성령, 순종, 독서, 습관, 인도, 청지기 의식, 교회 등이 있다.

나. 교리의 영역

초신자의 지식에 관련된 분야로는 성경적, 교리적 부분에 관해 양육 받는 부분이 있다. 교리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은 사역을 할 때 흔들림이 없다. 때문에 교리적인 양육은 특히 중요하다. 물론 이때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 따른 유동성을 발휘해서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생략할 것은 과감하게 생략해 주어야 한다. 내용으로는 교리 공부로는 삼위일체론, 하나님의 신성, 구원, 성화, 사단(마귀론), 교회론이 있고, 변증론적인 공부로는 성경의 영감, 부활의 증거, 제사의 오류, 타종교의 오류, 철학과 신앙, 과학과 성경 등이 있다.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상담학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이고도 조직적 성경공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196) 이 부분은 네비게이토의 제자에 대한 훈련 목표 30가지와 유사하다. 헌신의 영역에 제자훈련의 영역 일부분이 더 첨가되고, 어떤 분야는 세분되었다. 쿤은 암송과 성경공부,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비해 네비게이토는 성경말씀 듣기, 말씀 읽기, 말씀 연구, 암송, 묵상, 적용 등으로 세분되었다.

다. 제자훈련의 영역

초신자의 삶에서 증거하며,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전문적인 지식개발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복음전도,197) 시간관리,198) 간증, 양육, 상담, 변증학,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양육내용이 결정되면 훈련자의 수준과 훈련 환경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3. 커리큘럼의 개발

초신자와 양육자 간의 교제를 통하여 진리전달의 명백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양육의 주제들은 커리큘럼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어떤 주제는 일대일 (one to one) 형식의 개인양육보다 그룹 공부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또한 그와 반대로 개인 양육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

가. 일대일

일대일의 양육방법은 새신자의 양육과 성장을 위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새신자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육성을 실시하는 것이다.199) 일대일 양육의 필요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이다. 주님은 한사람, 한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막 8:36; 마 8:11-13, 18). 또한 개인적인 필요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필요성(눅 5:45), 아볼로의 필요성(행 18:26), 디모데의 필요성(딤후 5:23) 등이 이를 입증해 준다. 또한 바울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 준 디모데나 다른 젊은 그리스도인을 양육할 때 많이 나타난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 절에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을 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는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일대일의 영역은 구원의 확신, 회심 이전의 죄와 용서, 시험, 하나님과의 교제 등이 있다.

일대일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먼저 대

197) 네비게이토에서는 세계비전이란 항목으로 대치하고 있다.

198) 네비게이토에서는 지도자의 훈련 분야 중에 자신, 시간, 사역, 사람, 경비, 가족,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시간관리라는 항목은 제자훈련에서도 언급된다.

199) Billie Hanks Jr, William A. Shell. Shell, 제자훈련, 136.

상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양육하고 함께 기도할 대상을 정하기 위해 기도하며, 실제적으로 접촉한다. 이를 위해서 청계천, 동대문 시장 일대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각 기업체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접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로는 대상자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크한다. 기도, Q.T, 교회출석, 성경공부, Lordship,²⁰⁰⁾ 구원확신, 영접 등 피양육자의 부족한 부분, 양육 받아야 할 영역을 검토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대상자에게 성장을 위한 양식을 제공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신령한 젖과 같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는 단단한 식물처럼, 대상자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양육을 실시한다. 이와 병행하면서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갖고, 성경을 암송한다. 또한 전도에 관해 토론하며, 제자훈련을 실시한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돕도록 도와준다.

일대일 양육의 방법은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하며 격려해 주기,²⁰¹⁾ 가르침, 기도, 함께 거함으로 접촉하며, 말씀을 통해 육성하고, 문서를 통해서 성경공부 가이드나 소책자, 서적 등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서를 제공한다.

나. 소그룹(Small Group)

(1) 소그룹의 정의와 성격적 근거

소그룹은 개신교 쪽에서는 group contact, cell group, action group, caring group이라고 하며,²⁰²⁾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기초 공동체(group in action)라고도 한다.²⁰³⁾ 소그룹은 양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sharing), 전도(outreach)와 같은 활동 요소를 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만나는 모임이다.²⁰⁴⁾ 소그룹에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역동적인 그룹 생활을 창조하여 각 멤버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이다. 성장은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제'(contact) 그 자체에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contact group'이라 부른다. 그룹 생활의 상호영향을 통

200) 참조. IVP에서 출판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201) 참조. IVP에서 출판한 영적 갓난아이를 격려하려면.

202) 한국기독교학생회 편, Contact Group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82), 1.

203) Lyman Coleman, 기초공동체 건설, 성염 역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4), 7.

204) Ron Nicholas, Steve Barker, Judy Johnson, Rob Malone, Doug Whallon,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8), 26-27.

하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하여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더 친근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여 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증거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곳은 소그룹이다. 소그룹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만남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소유하도록 준비시켜 주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가운데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²⁰⁵⁾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²⁰⁶⁾ 대단히 많다. 먼저 구약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약은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생긴 것이라고 증거 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고자 여러 가족들과 다른 형태들의 소그룹을 통해 역사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의 염원이 곧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보이기 위해 여덟 명으로 구성된 노아의 가족을 사용하셨다(창 7:1).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도 소그룹 형태의 가족을 통해서이다(창 9:8-9). 그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고 소그룹 형태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준비시켰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민 2:13; 수 4:12; 느 3장; 단 1:3-7).

신약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이 열두 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을 만드시고 아끼셨다. 예수님은 공적 생애 3년간 소그룹 형태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면서 수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냈다. 예수님의 과업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이 목표를 향해 예수께서는 소그룹을 이끄셨던 것이다(요 17:6-8, 18).²⁰⁷⁾

또한 우리는 초대교회의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오순절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120명의 교회가(행 1:15) 3000명으로(행 2:41)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에는 구성원들이 더이상 대그룹으로만은 효과적으로 모일 수가 없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베드로의 메시지의 여파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상호 보완적인 두 개의 모임 곧 대그룹(large group meetings: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과 소그룹 모임(small group meeting: 집에서 떡을 떼며)으로

205) Steve Barker, Judy Johnson, Jimmy Long, Rob malone & Ron Nicholas, Small Group Leader's Handbook (Downers Grove: IVP, 1982), 13-14.

206) Ibid., 27.

207) Ibid., 28.

나뉘게 되었다. 이 소그룹 차원의 모임은 대부분 가깝게 살던 사람들로 이루어져 서로의 집에서 함께 모이는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쉽게 이루어진다.

(2) 소그룹 활동의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소그룹 활동은 4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행 2:42-47).²⁰⁸⁾ 그것은 예배와 양육, 전도와 공동체적인 교제이다.

(가) 예배적 요소(Worship)

그들의 예배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들은 형식을 갖춘 공적 예배(formal worship)와 가정에서 형식 없이 드리는 비공식적인 예배(informal worship)를 드렸다.²⁰⁹⁾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알기 시작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변화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조금씩 깨달기 시작하면서 그들 사이는 서로 공동체 속에 묶이게 되었다.

(나) 교육적 요소/양육(Nurture)

초대교회의 새신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혀 힘썼다”(행 2:42). 오늘날 사도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은 성경말씀이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에 복종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경외로) 나타났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경외하도록 한다.

(다) 공동체적 교제(Community)

당시의 공동체는 생명력이 넘쳐 오늘날의 주관적인 소속감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 2가지 구체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교제는 복음이라는 객관적 축복을 공통적으로 소유한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공동생활(community with God)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런 공동적인 생활은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의 기업(common inheritance)을 공유하고(share together) 있다는 것

208) Jimmy Long, “And God Created Small Groups”, *HIS* (March 1982), 6-7.

209) 참조. 행 2:46 당시의 교회가 가족단위의 가정교회였으므로 모든 가정예배는 반드시 비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의 표현이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소그룹의 공동체적 교제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서로 통용했다(sharing with one another)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 필요를 채워 주려고 노력했다(행 2:44-45). 초대교회의 소그룹은 서로 친밀하고, 상호 관심을 보이고 서로를 보살피 주는 그룹이 되었다. 이것은 소그룹 내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 전도적 요소(Mission)

초대교회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계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고 고백했다(행 20:24).

이상의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은 하나의 소그룹을 강화시키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소그룹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그림 9> 소그룹 생활의 네 가지 구성요소

(3) 소그룹 활동의 발전단계 양육

인간이 처음 태어나 유아기를 거쳐 어린이 시절로 접어들고, 또 거기에서 청소년기로 그리고 장년기와 노년기로 옮겨가듯 성장도 이런 자연스런 발전의 단계를 거쳐서 나아간다. 이 발전단계에 대해서 소그룹 활동에서는 몇 가지 이름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그것은 탐색기(exploration), 변화기(transition), 행동기(action) 그리고 종료기(termination)라고 한다.²¹⁰⁾ 그리고 이들 각 단계는 단계별로 소그룹 회

원간의 생각이나 행동들, 또한 특징적인 행동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각 단계별 특징들을 숙지해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소그룹의 지도자가 각 그룹의 단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 그룹 내에서의 제자훈련

그룹 멤버들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강조점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다.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일, 은사를 계발하는 일, 증인이 되는 것이다.

첫째로,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일은 소그룹 내에서 제자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인간은 자기가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호신뢰와 용납의 분위기 속에서 가장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는 제일 먼저 멤버들의 필요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그들을 파악하기 위해 그룹 안에 있는 각 개인과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신뢰의 분위기가 생기게 해주고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멤버들의 필요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일대일 관계(one to one relationships)이다. 일대일 관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대일 관계의 첫 번째 요소로는 기도짝(prayer partnership)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기도짝이란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만나는 관계를 기도짝이라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도짝 활동을 통해서 서로간에 문제를 솔직히 나누고, 이것을 기도 가운데 주님에게 가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보살피는 기회를 갖는다. 그 다음으로는 사역과 훈련을 겸한 소수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룹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함께 도와서 훈련시킬 한 두 사람을 선택할 필요가 있게 된다. 만약 리더가 떠나면 그 모임은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멤버들을 수용하기 위해 어떤 순간에 그룹을 분할시킬 필요가 있게도 된다. 때문에 두 명의 부 리더(co-leader)를 훈련시키는 것이 지혜롭다.

<표 8> 소그룹 활동의 발전단계²¹¹⁾

210) 김재현, 박충규, 교회·교회성장·사랑방 전도훈련, 165.

211) Ibid., 166.

각 단계	탐색기	변화기	행동기	종료기
1단계: 그룹 멤버들 의 생각	·내가 이 그룹에 속해 있는가? ·나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내가 이 그룹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 그룹은 누구의 그룹인가? ·이 그룹은 제대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뭔가 해보자 ·난 기꺼이 모험을 해 보겠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바쳐 볼 거야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나 자신에 대해 배운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 그룹 멤버들 의 느낌	·기대감 ·불안감 ·흥분	·줄어드는 열정 ·긴장감 ·불안감 ·성급한 마음	·받아들이는 느낌 ·굳은 결의 ·온화함 ·자유	·온화함 ·존경심 ·올바른 평가 ·섭섭함
3단계: 그룹 멤버들 의 행동	·어떤 정보를 제공 (자신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임	·가끔 결석하는 일이 생김 ·화나게 하는 일에 대한 표현 ·자신에 대해 자서전적인 소개를 함	·긍정적인 느낌을 나눔 ·리더십을 분산시킴 ·모험의 감수 ·평가의 기회를 가짐	·사랑과 존경심의 표현 ·서로에게 감사함

성장에 기여하는 두 번째 요소로는 은사를 계발하는 일을 들 수 있다. 모든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최소한 한가지의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말한다 (벧전 4:10).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위해 성도들을 세워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함 같은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맥락에서 사역을 행하고 있다. 기도 모임을 조직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역을 행할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지원 조직을 형성하는 일 등이다.²¹²⁾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소그룹이라는 환경에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212) Lawaence O. Richards, Gilbert R. Martin, 평신도 사역 (서울: 나단출판사, 1994), 173.

성장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증인이 되는 일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받은 복음을 동료에게 전해주는 임무를 수행하게 해 준다. 그런데 전도란 이런 일들을 수행할 때 놀랄 만한 경험을 하게 된다. 흔히 외국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애국자가 된다는 이야기처럼, 자신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혹은 변증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단,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침묵의 장벽을 깨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 침묵을 깨는 훈련은 단지 이론적이어서는 안 된다. 불신자들과 신앙을 나누는 일에 경험을 얻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이 경험을 얻음으로 질문하는 불신자들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은 폴 리틀(Paul Little)의 이래서 믿는다 (Know Why You Believe)와 같은 것들이 있다.

또한 소그룹으로 전도할 수도 있게 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계획들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임으로는 특별한 저녁 모임(outreach evening), 식사초대, 전도성경공부 등이 있다. 또한 양육의 한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3-4주간 정도의 연구식 성경공부에 참여하도록 초대할 수도 있다.²¹³⁾

다. 성경공부

(1) 기초 양육과정의 성경공부

'Simple Question & Answer Bible Study'(<표 8>의 1단계에 해당)은 초신자에게 필요한 확신과 생활에 관한 성경구절들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해감으로써 효과적인 성경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재로는, 그리스도인의 확신,²¹⁴⁾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²¹⁵⁾ Growing in Christ,²¹⁶⁾ Your Decision²¹⁷⁾ 등이 있다.

213) 이것은 Evangelistic Bible Study와 상통한다.

214)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네비게이토 출판사에서 제작한 책으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15)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은 네비게이토 출판부에서 제작한 책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후히 드리는 생활, 증인으로서의 생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16)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합본한 교재이다.

217) 이 책은 네비게이토의 유명한 스텝인 론 샌니(Lorne Sanny)가 1974년에 출판한 책이다.

(2) 장기 양육과정의 성경공부

장기 양육과정의 성경공부는 'Advanced Question & Answer Bible Study'(<표 8>의 2단계에 해당)와 'ABC Bible Study'(<표 8>의 3에 해당)가 있다. 교재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²¹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²¹⁹⁾ A Bible Study on Essentials of Discipleship,²²⁰⁾ God's Design for the Family,²²¹⁾ Scripture Foundation for the Home,²²²⁾ Scriptural Relation in the Home,²²³⁾ Navigator Bible Studies Handbook²²⁴⁾ 등이 있다.

(3) 인격 형성과정에서의 성경공부

예수님의 지상생활 및 실천을 다룬 The Life and Ministry of Jesus Christ,²²⁵⁾ 를 통해서 양육한다. 교재로는 하나님의 속성과 임재와 의도를 다룬 Experiencing God's Attributes,²²⁶⁾ Experiencing God's Presence,²²⁷⁾ Experiencing God's Will,²²⁸⁾ 인간관계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공부하는 Interpersonal Relationship,²²⁹⁾ 성경해석의

218) 이 교재는 1979년도에 출판한 것으로, 1권에서 6권까지는 질문과 대답 형식에 의한 주제별 성경연구로 전체 26과로 구성되어 있고 7권부터 9권까지는 장별분석 성경공부(Chapter-Analysis Bible Study)로 되어 있으며 10권은 귀납적 성경공부를 위한 교재로 '자신의 성서탐구'(약칭 SCL)이라고 부른다.

219)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1980년도에 한국에 소개된 교재로 1.그리스도 안의 생활, 2.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 3.그리스도와의 동행, 4.그리스도인의 성품, 5.믿음의 기초, 6.그리스도 제자로 성장, 7.그리스도안의 소망(살전)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그 내용이 S.C.L과 같다(약칭D.F.D라함).

220) 프란시스 코스그로브(Francis M. Cosgrove Jr)가 만든 제자훈련 교재이다.

221) 이 책은 네비게이토에서 제작한 책으로 원제목은 The Navigators, God's Design for the Family(Colorado Springs: Navpress, 1980)으로 첫 권은 아내와 남편들에 관해서, 두 번째 부분은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 3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해서, 4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222) 이 책은 조지 산체스(George Sanchez)가 1979년도에 가정 예배용으로 만든 교재이다.

223) 이 책도 조지 산체스가 제작한 교재로 가정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책이다.

224) 이 책은 네비게이토 선교회에서 1979년도에 제작한 교재로 7가지 성경공부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다.

225) 네비게이토 선교회에서 1982년도에 출판한 책으로 전3권으로 되어 있다.

226) 워렌과 루스 마이어즈(Warren & Ruth Myers)가 1978년도에 출판한 책이다.

227) 워렌과 루스 마이어즈가 1979년도에 만든 교재이다.

228) 역시 워렌과 루스 마이어즈가 만든 책이다.

원리와 성경공부 방법과 성경공부의 기술 향상 문제를 다루는 Laymen's Guide to Interpreting the Bible,²³⁰⁾ 성경 토의 그룹의 인도를 위한 지침서(Lead),²³¹⁾ A Bible study on Honesty, Morality & Conscience²³²⁾ 등이 있다.

4. 양육의 실행

양육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한 양육자의 단계적 방법들을 살펴본다. 먼저 양육자 자신이 더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핀다(딤후4:7).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양육자를 강한 훈련자로 개발시켜 줄 것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기회를 주실 것을 간구한다. 또한 훈련자 개인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신앙적인 지도가 필요할지를 알아낸다.

양육의 주제 들로는 주권 의식, 기도, 교제, 사랑, 확신, 성경공부, 성경암송, 경건의 시간, 증거, 신앙, 교리 등이 있다. 끝으로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작성한다. 계획의 실행은 목적, 시작, 진행, 평가 순으로 진행한다.

229) 1978년도에 조지 산체스가 세미나 형식으로 성경공부하도록 만든 교재이다.

230) 월트 헨드릭슨(Walt A. Henrichsen)이 1978년도에 만든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성경해석지침서이다.

231) 네비게이토 선교회, 성경공부 인도법, 네비게이토 선교회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부, 1980), 5.

232) 이 책은 제리 브릿지(Jerry Bridges)가 1979년도에 정직함과 도덕과 의식 등을 주제로 삼은 책이다.

제 6 장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대한 제언

우리나라도 이제는 공단 근처나 혹은 도시 인근의 영세 공장들이 있는 곳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이 낯설지 않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나 정책의 결여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다. 성경적인 외국인 근로자 선교 철학의 부재는, 어떤 곳에서는 사회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자선사업적인 사역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전도만을 목적으로 사역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선교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되는 결과를 얻기도 한다. 이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대해서 확실한 철학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따라서 본 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 1 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선교관 정립

1. 타문화권 선교로서의 외국인 근로자 선교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해야만 꼭 타문화권 선교를 한다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는 비록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이지만 분명 타문화권 선교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몸만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이지, 그들의 언어나 사고 방식, 생활방식은 여전히 그들 나라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외국인 근로자 선교가 타문화권 선교임을 인정하고, 한국의 교회 개척이나 목회와는 다른 목적과 전략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대부분의 사역 방식과 내용은 한국적 스타일, 혹은 자기 교회나 단체의 스타일이 너무 강하여 바람직한 타문화권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총체적 선교로서의 외국인 근로자 선교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는 편향된 선교관이다. 선교 단체나 기관들은 자신들의 선교 철학 내지 비전을 갖고 선교하게 마련이다. 이 때 이들 각자가 갖고 있는 선교관에 따라서 사회사업 성격의 선교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영혼 구원에만 치중하는 선교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선교는 그들의 현실적인 아픔을 외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선교는 영혼 구원과 현실적인 문제를 돕는 사역이 잘 조화를 이루는 총체적 선교(wholistic mission)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교는 바른 선교관의 확립과 적절한 선교 전략의 수립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제 2 절 타기관과의 협력 사역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선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너무나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기대하기가 거의 어렵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개 교회나 외국인 근로자 선교 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현실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모임자체를 꾸려나가기에 급급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복음주의 권에서는 협력기관을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역자들이 모이고 있으며, NCC쪽에서도 임명진 목사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가 활동하고 있다.²³³⁾ 이제는 이런 단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다차원적인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의 4개 단체를 서로 연합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²³⁴⁾

233) 김중안,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선교적 과제",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한 자료모음 3 (서울: 회년선교회, 1994), 40.

234) 최원진,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 54-58.

1. 외국인 근로자 선교 단체들과 교회들과의 협력

외국인 근로자 선교 단체들간의 연합체 형성은 벌써 일부에서는 전국적인 연락망과 공조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실제로 서로 연합해서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과 협력을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선교는 보다 긍정적인 도약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걸은 더 나가서 이제는 한 단체나 교회가 다민족을 상대로 선교하기보다는 한 단체나 교회가 한 민족씩을 맡아서 사역한다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여겨진다.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각 단체나 교회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서로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한 일이다.

2. 외국인 노동자 자치 단체와의 협력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교회나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치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사역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네팔 노동자 단체나 방글라데시 노동자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에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들도 그들에게 선교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한국교회가 주도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참여케 하면, 보다 성숙한 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상호 존중과 협력은 선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공동체적 차원에서 집단 개종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단체와 연계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민족간의 감정이나 종교적인 정서를 예민하게 주시하는 것이다.²³⁵⁾ 비록 외국이라는 환경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고, 어떤 면에서는 해소되는 경향도 보이긴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상호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분단된 국가들이므로 이런 단체들과 연계활동을 펼 때에는 단체들 사이의 저변에 깔려 있는 저항 요소들을 간파해야 한다. 또한 한국 교회는 이들의 민족적인 감정을 이해하여 단지 갈등을 피하는 것에만 만족하기보다는 복음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235)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싱할라족과 타밀족의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나라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같이 취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접근은 동질단위 집단의 전도의 효과를 뛰어넘는 것으로 모든 막힌 담과 벽을 무너뜨리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3. 현지 선교사나 선교 단체와의 협력

현재 한국 교회가 펼치는 외국인 노동자 사역의 사각 지대는 본국에 되돌아간 근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사역에 있다. 한국에서는 교회에도 잘 나오고, 어느 정도 신앙심이 생겼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도, 전혀 불신앙적이거나 혹은 반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있는 사회에서는 있던 신앙도 없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 후에도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그들 자체의 독립적이면서도 자립적인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 선교사 혹은 현지 선교단체와 협력해서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와의 연계성이 요구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속적인 제자화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다. 설사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본래 환경과 비기독교적인 사회 여건에 의해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고 자립적이고 자전적인 신앙으로 토착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연계성 있는 사역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교역사 중에서 청교도들의 인디안 선교의 실패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인디안들 가운데는 청교도들이 사는 지역에 와서 전도가 되었고 양육되었으나 다시 인디안 사회에 돌아가서는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했는데, 이는 이들 개종한 인디언들이 너무 서구화되었고 그들의 삶의 수준이 기존의 인디안 보다 월등히 높아져서 다시 그들의 사회로 동화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한국 교회도 청교도들의 인디안 선교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리스도 제자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출신지에서 선교 사역하는 현지 선교사와 연합적인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즉 한국 교회가 선교현지에 단순히 교회를 지어주어 선교를 한다는 데서 더 나아가서 독자적인 현지교회가 설립되도

록 하며 또한 신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송출하는 국가에서 일하는 선교 단체나 교회들과 연합적인 사역을 벌이기 위해서는 국내의 선교회나 교회가 선교지의 현지인 교회나 단체들과 단계적으로 공동적인 프로젝트에 가담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자생력을 길러주어 복음의 토착화를 유도하는 전략인 것이다.

현지와의 보다 실질적인 연계성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하는 교회나 단체는 현지에 실무 책임자를 '단기 선교사'로 파송할 필요도 있다. 즉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국내에서만 사역하는 것보다는 현지의 내밀한 사정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사역하는 일에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현지에서 일하는 장기 선교사와의 접촉을 통해서, 광범위한 연합적인 지원과 포괄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자가 현지에 있는 선교사나 선교 단체와의 연합적인 사역을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할 뿐더러 현실적으로 긴요한 전략이라고 판단되어진다.

여기에 덧붙여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안식년으로 들어온 장기 선교사와의 협력 사역이다. 이들은 대부분 현지어에 익숙하고 현지문화에 어느 정도는 적응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사역자들보다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깊숙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안식년 중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모국어(mother language)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인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4. 정부 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다양한 정치, 경제적인 역학과 연관되어 있고 교회 내적인 요소보다는 외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노동 단체에서의 논리와 정부 기관에서의 논리가 서로 기초를 달리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보는 시각도 정부 기관 내에서조차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회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나 사용자측이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건실한 중개자로서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적인 차원에서 가장 현실성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편중됨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정책은 한두 가지 정도의 사회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기준들과 원인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만큼 교회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OECD에 가입한 한국의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중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하는 교회나 단체를 통해서 건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곧바로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현지 장기 선교사들과 선교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교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단지 노동을 상품으로 파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성경적이면서, 또한 국민소득 일만 불 시대에 걸맞은 열린 자세인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의 좋은 평판은 선교지에서의 선교 사역에 좋은 발판이 된다.

한국 교회나 선교 단체가 바로 이상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교 철학과 전략을 수용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은 단지 소수의 교회가 감당할 책임이 아니라 전체 한국 교회가 감당할 중대한 사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 3 절 사역 단체의 개발

1. 전략 및 자료와 정보의 개발을 위한 기관의 설립

특히 정부의 시책에 따라 선교전략과 내용이 탄력성이 있어야 하며, 각 교회별로 혹은 선교 단체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또는 물량공세 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 사역이 통일성을 가지고 각급 교회와 선교 단체가 협력을 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사역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에서 선교 사역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정기적인 선교 전략 모임이나 세미나 등이 필요하며 정보의 교환과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전도나 양육, 교재 등이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각급 교회나 선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교환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은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매우 필요한 것

이다.

2. 사역 단체의 설립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는 한 교회나 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다. 때문에 여러 교회나 혹은 노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나 전문 선교 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다가 교회나 기관을 세워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아 선교적 사역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역을 담당할 전담 사역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타문화권 선교 사역으로 인정해서 총회 차원에서 비거주 선교사²³⁶⁾로 인준해 주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 하겠다. 또한 설교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신 국가에서 설교자들을 청빙할 수도 있고, 혹은 은퇴한 선교사나 사역지 조정으로 인하여 귀국한 선교사들을 언어권 별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제 4 절 외국인 근로자 양육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의 개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선교사역의 일군으로 키울 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줌으로 복음 사역에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양육을 위해서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 한국어 교실의 운영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역시 언어

236) V. David Garrison, 비거주 선교사, 김창영, 조은화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39. 비거주 선교사의 개념은 원래 선교지역에 어려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주재하기가 어려워, 거주하기가 쉬운 자유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선교사를 일컫는 말인데, 여기서는 외국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선교하는 점을 착안해서 사용한 개념이다.

문제이다.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가르침으로, 언어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많은 선교적 재능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쉽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행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땅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 또한 이 땅에서의 생활도 편리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는데 매우 적극적이다. 이런 우리의 필요와 저들의 현실이 합해져서 한국어 교실은 매우 호응도가 높다. 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한국어의 교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리는 단순히 언어만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도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 숙소 및 피난처(Shelter) 제공²³⁷⁾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열악한 숙소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인권 침해 시 탈출해 나오거나 또는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있을 곳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동 숙소 또는 피난처가 제공된다면, 많은 이들을 자연스럽게 불러모을 수 있고,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제자화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쉼터에 각 교회에서는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용한다면, 교인들의 봉사와 선교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자국에 돌아가서도,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공간은 문화 공간으로 돈과 시간의 구매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나 영화감상, 취미 교실,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쉼터는 그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해소시킬 뿐만 아

237) 서울 총현교회의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동두천, 광주, 이천 등 경기도 일원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시내(중구, 강남구)에 그들의 쉼터를 마련하고 토요일 일과를 마친 후에는 그곳에서 쉬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라, 또한 우리들에게는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3. 의료 사역

앞에서 살펴본 대로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각종 직업병과 질병, 산업재해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경우 그들의 불법적 신분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뜻 있는 병원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아 외국인 근로자 의료공제회를 조직하여 선교의 목적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교회와 전문선교회가 연합하여 정기적으로 의료 사역(238)을 할 수도 있다. 한편 기본적인 응급처치나 진료, 비상상비약의 무상지급도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역은 성경의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말씀과도 일치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연약할 때 돌봄으로 인해서 복음의 길을 더욱 넓게 열 수가 있다.

4. 상담 사역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강제노동, 폭행, 산재 등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특히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경우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상담 사역이 아주 중요한 선교의 부분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이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복음전파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사역을 위해 전문적인 사역자나 혹은 다른 선교단체와의 연대활동 및 외부 관련 단체나 기관의 협조도 필요하다.

5. 문서 교실 운영

적절한 형태의 전도지와 교재 등을 발행하여 배포한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238) 사례를 보면, 구로 공단에 있는 회년선교회에서는 2주에 한차례씩 격주로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인하대 한국누가회 소속 의대생 10여명의 의사와 함께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회년소식 94.8). 그밖에도 많은 교회들이 전문 선교회와 연결하여 의료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충현교회는 1년에 두 차례씩 충현교회 의료선교회의 주관으로 의료사역을 하고 있다.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전도지는 효과적 전도 수단이다. 각 국별, 종교별로 적절한 내용의 전도지를 만들고 여기에 선교회의 각종 섬기는 활동에 관한 안내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 때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 나라의 사정이나, 이곳에 나와 있는 동료들의 근황을 결들인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제 5 절 도시선교(Urban Mission)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²³⁹⁾

현대 선교에 있어서 도시선교는 그 규모나 긴급성에 있어서 어느 선교지에서나 중요하게 부각되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선교는 국내의 공단 선교나 도시빈민선교와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고 도시 선교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한국의 도시 빈민이나 공단선교와 연관지어 바라보고 접근함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도시화에 적응하도록 되어있어서, 결국 그들이 귀국했을 때에는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 이것은 그들의 경제력의 향상과 더불어 한국에서의 도시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양육해서 선교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도시 선교와 연관지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며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 온전한 복음주의적 선교정신이 회복되고, 선교가 한국 교회의 성숙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이다.

239) 정병관, 도전받는 현대 목회와 선교, 135-220.

제 7 장

결 론

본 논문의 목표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 나라에서 평신도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있다.

그런데 현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이 귀중한 선교 영역을 등한히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²⁴⁰⁾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 논문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요한 선교 대상으로 삼아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동기가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선교가 보다 효과적인 선교 사역임을 전제로 보다 효과적인 선교가 되기 위해서 개발되어야 된다는 점과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2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선교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 밝혔다. 3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가 성경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타당한 사역이라는 점을 밝힘과 동시에 이 사역이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 매우 필요한 사역임을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고찰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면을 고찰함으로, 외국인 근로자선교 사역에 중요한 배경을 이해하도록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선교 신학적인 이해에 대해서 논의했다. 5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평신도 선교사로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먼저 일반적인 제자훈련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양육에 적합한 응용 모델에 관해서 논의했다. 6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240) 전호진, "한국교회의 외국인 선교 중요성과 전략", 희년선교회, 1997년 8월호, 14.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각자의 나라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며 타당한 선교 전략임을 밝혔다. 물론 한국교회는 기존제도나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시도 자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아직도 선교에 대한 인식보다는 교회부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충성된 소수에게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을 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각기 자기들 나라에 가서 성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충성된 소수를 제자화하였을 때는 선교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은 각기 자기 나라에 돌아 갈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함으로 자연스럽게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선교하여, 그들을 제자훈련시켜서 그들의 나라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 선교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인 만큼,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밝히면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강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선교." 기독교사상. 1983년 7월호.
- 강명규.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교 신학적인 고찰." 서울: 외국인노동자선교자료실, 1996.
- 강문석. 선교정책론. 서울: 도서출판 칼빈서적, 1992.
- 강승삼.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미션저널 (1996 가을).
- 고원용. 선교 사명자 안내. 대구: 보문출판사, 1979.
- 김규복. "IMF 시대의 외국인 노동자 선교." 교회와 세계 (1998).
- 김덕준. 기독교와 사회복지. 서울: 미광문화사, 1985.
- 김명혁 편.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1997.
- 김성욱. 선교적 교회론. 서울: 총신대학교 강의안, 1999.
- 김이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8.
- 김의환. 복음과 역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김재현, 박충규. 교회·교회성장·사랑방 전도훈련. 서울: 에베소 서원, 1994.
- 김정준. "구약성경에 나타난 빈자의 연구." 신학연구 제14집, 1973년 11월호.
- 김중안.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선교적 과제."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한 자료모음 3. 서울: 희년 선교회, 1994.
- 김활영 편. 세계선교의 비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1999.
- 김혜석.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연구."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이화여대 대학원, 1980.
- 권병학.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세계선교대학원, 1997.
- 네비게이토 선교회. 성경공부 인도법. 한국네비게이토 선교회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부, 1980.

- 박관구, "외국인 근로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빛과 소금, 1998년 2월호.
- 박건. 멘토링.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2001.
- 손혜숙.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집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1999.
- 신동우. 선교학: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3.
-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이만식,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2000).
-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81.
- _____. "한국교회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선교적 과제." 교회와 신앙, 1996년 1월호.
- 이명석. "도시선교 관점에서 본 외국인 노동자 선교 정책 연구."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997.
- 이태웅. 제자훈련은 이렇게. 서울: 두란노, 1986.
- 이현갑 편. 세계의 종교들. 서울: 도서출판 청파, 1993.
- 조선일보. 2000년 5월 30일자, 10월 7일자.
- 조이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훈련.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1982.
- 전재옥. 타문화권 선교이해. 서울: 총현교회 세계연구원, 1995.
-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0.
- _____. "한국교회의 외국인 선교 중요성과 전략 서울." 희년선교회, 1997년 8월호.
- _____. 종교다원주의와 타종교 선교전략.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8.
- _____. 인종갈등의 시대와 미전도 종족선교. 서울: 영문, 2001.
- 정병관. 도전받는 현대 목회와 선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정호연. "외국인의 체류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1.
- 채은수. 선교학 총론. 서울: 기독지혜사, 1991.
- 총현교회 선교연구원 편. 세계 기독교 운동에 관한 관점. 서울: 총현교회 출판부, 1996.
- 최원진.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1999.

한국기독교학생회 편. Contact Group. 서울: IVP, 1982.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 성경공부 인도법. 서울: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 1980.

한국 복음주의선교학회. 에큐메닉스. 서울: 성광문화사, 1988.

한국 전문인선교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서울: 도서출판 창조, 2000.

2. 번역서적

Bavinck, J. H. 선교학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Berkhof, Louis. 기독교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Bultmann, Rudolf. 신약성경신학. 허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3.

Cannon, William R.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Chandapilla, P. T. 예수 위대한 훈련가. 서울: IVP, 1981.

Coleman, Lyman. 기초공동체건설. 성염 역. 서울: 성바로출판사, 1984.

Coleman, Robert E.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Conn, Harvie M. 복음전도.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93.

Eims, Leroy.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서울: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 1979.

_____.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서울: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 1979.

_____.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서울: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 1980.

_____. 그리스도인의 확신. 서울: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1980.

_____. 제자삼는 사역의 기술. 서울: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 출판부, 1981.

_____.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서울: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출판부, 1982.

_____. 제자 양성의 비결. 김의자 역. 서울: 보이스사, 1983.

Engen, Charles Va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운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Hanks, Billie Jr,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Happer, Norman E. 현대기독교 교육. 이승구 역. 서울: 정음출판사, 1984.

Hedlund, Roger E. 성경적 선교신학. 서울: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91.

Hendriksen, Howard. 성경과 사회정의. 서울: 분도출판사, 1984.

Hiebert, Paul G. 선교와 문화인류학. 김동화 외 3인 역. 서울: 조이선교출판부, 1998.

- _____ . 선교 현장의 문화 이해. 김영동, 안영권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7.
- Home, Herman H. 예수님의 교육방법론. 박영호 역. 서울: CLC, 1982.
- Garrison, V. David. 비거주 선교사, 김창영, 조은화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Green, James Benjamin.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조해설.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Griffiths, Michael. 영적 갓난아이를 격려하려면. IVP 역. 서울: IVP, 1982.
- _____ .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 Gonzalez, Justo L. 근대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89.
- IVF. Contact Group. IVP 역. 서울: IVP, 1982.
- Kaiser, Walter C. Jr. 구약성경윤리. 홍용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Kane, Herbert. 선교신학의 성경적 기초.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4.
- Kraemer, Hendrik. 그리스도교 신앙의 커뮤니케이션. 서울: 종로서적, 1981.
- Küng, Hans. 교회.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5.
- _____ . 기독교선교와 타종교. 최정만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Munger, Robert Boyd.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IVP 역. 서울: IVP, 1981.
- Nicholas, Ron, Steve Barker, Judy Johnson, Rob Malone, Doug Whallon.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8.
- Richards, Lawaence O. & Gilbert R. Martin. 평신도 사역. 서울: 나단출판사, 1994.
- Scott, Waldron. 사회 정의와 세계 선교를 향한 제자도. 강선규 역. 서울: 두란노, 1990.
- Yohannan, K. P. 다가오는 세계 선교의 혁명. 조은혜 역. 서울: 조이선교회, 1991.
- Young, John. 선교의 동기와 목적. 서울: 성광문화사, 1980.
- 오가와 쿠니미쯔. 선교지에 산다. 서울: 성서유니온, 1985.

3. 외국서적

- Arndt, William F. & F. Willour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 Barker, Steve, Judy Johnson, Jimmy Long, Rob malone & Ron Nicholas, Small

- Group Leader's Handbook. Downers Grove: IVP, 1982.
- Berkhof, H.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Eerdmans, 1985.
- Clowney, Edmond P. The Church. Downers Grove: IVP, 1995.
- Costas, Orlando E. The Church and Its Mission. London: Tyndale, 1974.
- Engel, James F. & H. Wilbert Norton. What's Gone Wrong with Harvest?
Hadidian, Allen. Successful Discipling. Chicago: Moody Press, 1979.
- Grunlan, Stephen A. & Marvin K. Mayers. Cultural Anthropology: A Christian Perspective. Grand Rapids: Zondervan, 1979.
- Long, Jimmy. "And God Created Small Groups." HIS (March 1982).
- Meeter, H. Henry.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
- Miller, Donald. The Nature and Mission of the Church. Atlanta: John Knox Press, 1957. Michigan: Zondervan, 1977.
- Moore, Waylon B. New Testament Follow Up. Grand Rapids: Eerdmans, 1978.
- Ridder, Richard R. De. Discipling the N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1.
- Soderholm, Marjorie. Salvation then What?. Minneapolis: Free church Publication, 1968.
- Sundkler, Bengdt. The World of Mission. Grand Rapids: Eerdmans, 1965.
- The Navigators. NAVPRESS 80/81. Colorado, Springs: Navpress, 1980.
_____. Group Leader's Handbook. Downers Grove: IVP, 1982.
- Wagner, Peter.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Ventura: Regal Books, 1987.
- Wilson, Carl. With Christ in the School of Disciple Building. Michigan: Zondervan, 1981.
- Young, J. Edward. The Study of Old Testament Theology Today. Oxford: James Clark and Co. Ltd., 1958.

VITA OF
SEUNG SOO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Sunkwang Presbyterian Church, Chungnam,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 Feb 9, 1955
Birthplace : Seoul, Korea
Marital Status : Married to Myung Shin Kim with one Child, Jae Hyun
Home Address : Royal Mansion #1101, 60-1 JeoJun-Dong,
Soonchun-city, Chunnam, Korea
Denomination :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 May 8, 1992

Education

Th. B. : Chong Shin University, Seoul, Korea, 1985
M. Div. : 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91
D. 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2

Personal Experience:

9/1991 to 12/1993 : Minister of Korea Scripture Union, Pusan, Korea
8/1992 to 6/1997 : Senior Pastor of NamBooJuYoung Presbyterian Church,
Pusan, Korea
7/1997 to 2/2001 : Assistant Pastor of Choong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3/2001 to present : Senior Pastor of Sunkwang Presbyterian Church,
Soonchun-city, Chungnam, Korea